문학석사학위논문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 연구



2011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郭 輝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郭 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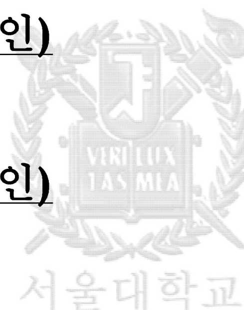
郭 輝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0년 8월

위 원 장 ___________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___________ (인)

위 원 ________________ (인)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초 록>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 연구

곽휘

본고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에 비교술어의 형태 범주를 밝히고, 차등비교구문에 구성 요소의 생략 현상을 정립하는 것이다.

형용사를 비롯하여 동사 등 다양한 품사가 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지만 비교구문의 통사구조와 의미의 영향을 받아 비교술어의 형태 범주가 많이 제한된다. 본고는 먼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를 대상으로, 비교술어의 품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품사 중에 어떤 품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차등비교구문은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내용, 비교표지, 비교술어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구성 요소들이 비교구문에서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요소를 생략하는 현상도 있다. 본고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내용의 생략을 비롯하여,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생략 문제를 살펴보고, 구성 요소의 생략 이유를 밝힐 것이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하기 전에 비교구문의 여러 가지 개본 개념을 제시하였다. 먼저 비교구문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비교구문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비교구문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등비교구문의 형태 및 통사구조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를 살펴보았다. 비교술어 자리에 자주 나타나는 형용사를 비롯하여, 일부 동사와 명사를 포함해서 살펴보았다. 명사, 부사 및 관형사가 차등비교구문에서 통사적인 비교술어가 될 수 없지만 의미적인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3.1.에서는 형용사 비교술어를 살펴보고, 형용사 중에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을 제시하였다. 3.2.에서는 동사 비교술어를 살펴보고, 대부분 동사는 정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술어가 될 수 없음을 논의하였다. 3.3.에서는 명사 비교술어를 살펴보고, 정도성을 가지는 일부 명사도 비교술어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3.4.과 3.5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에서 각각 부사 비교술어, 관형사 비교술어를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차등비교구문에서 구성 요소의 생략 문제를 살펴보았다. 4.1.에서는 비교주체의 생략을 고찰하고, 4.2.에서는 비교대상의 생략을 논의하였다. 비교대상의 생략은 완전 생략과 불완전 생략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4.3.에서는 비교내용의 생략을 고찰하였다. 비교내용의 생략은 비교술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내용의 생략은 비교술어를 바탕으로 품사별로 논의하였다.
5장에서 논의의 결론을 맺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였다.

주요어: 차등비교, 비교술어, 구성 요소, 생략,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내용

학번: 2009-2248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차 례>

<초록> ······ i

1. 서론 ······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 1

1.2. 선행 연구 ······ 2

1.3. 논의의 구성 ······ 5

2. 비교 구문의 기본적 논의 ······ 7

2.1. 비교의 개념 및 성립 요건 ······ 7

2.1.1. 비교의 개념 ······ 7

2.1.2.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 ······ 10

2.2. 비교구문의 유형 ······ 11

2.2.1. 유형 분류 ······ 11

2.2.2. 의사비교구문 ······ 14

2.3. 차등비교구문 ······ 15

2.3.1. 구성 요소 ······ 16

2.3.2. 형태 및 통사구조 ······ 20

2.4. 요약 ······ 23

3.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 25

3.1. 형용사 ······ 27

3.1.1. 비교술어로 가능한 경우 ······ 28

3.1.2. 비교술어로 불가능한 경우 ······ 32

3.2. 동사 ······ 33

3.2.1. 변성동사 ······ 34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2.2. 심리동사 ········· 36
3.3. 명사 ········· 38
3.3.1. 정도성 명사 ········· 39
3.3.2. 방향성 명사 ········· 42
3.3.3. 시간성 명사 ········· 43
3.4. 부사 ········· 43
3.4.1. 방식부사 ········· 44
3.4.2. 정도부사 ········· 45
3.4.3. 시간부사 ········· 46
3.5. 관형사 ········· 46
3.6. 요약 ········· 47

4. 차등비교구문에서의 요소 생략 ········· 49
4.1. 비교주체의 생략 ········· 51
4.2. 비교대상의 생략 ········· 53
4.2.1. 완전 생략 ········· 55
4.2.2. 불완전 생략 ········· 55
4.3. 비교내용의 생략 ········· 70
4.3.1. 비교내용의 생략 가능 ········· 71
4.3.2. 비교내용의 생략 불가능 ········· 77
4.4. 요약 ········· 82

5. 결론 ········· 83

참고문헌 ········· 86
＜中文摘要＞ ········· 92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고는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논의할 주된 내용은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술어의 품사 범주, 구성요소의 생략 문제를 포함한다.

사물을 기술 및 설명할 때 다른 사물과 비교해서 기술하면 그 사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이 건물이 높다'고 말하면, 그 높이의 정도를 파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교대상에 따라서 이 건물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은 절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높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교'를 사용하여 기술하면 이 건물의 높이에 대해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 건물은 우리 동네 빌라보다 높다'고 말한다면 그 건물은 별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네 빌라의 높이가 낮다는 사실은 누구도 알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 건물은 63 빌딩보다 더 높다'고 말할 때는 이 건물은 정말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63 빌딩은 한국에서 높은 건물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교구문'을 사용하면 사물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깊어진다.

비교구문은 인구어 계통의 언어에만 존재하는 통사현상이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법범주이다. 그러나 언어마다 비교를 표현하는 문법 형식이 다르다. 영어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기준 표지 'than'을 통해 비교대상을 도입하고 형용사의 형태변화를 통해 비교결과를 나타낸다. 형태변화는 형용사 뒤에 '-er, -est'를 붙이거나 앞에 'more, most'를 통하여 나타난다. 즉 보통 말하는 형용사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다. 그러나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영어처럼 원급, 비교급, 최고급과 같은 형태 변화 없이 비교표지를 통하여 비교대상을 도입해서 서술어로 비교결과를 표현한다.

연구사를 살펴보면, 한국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가 다른 문법법주보다 활발하지 않다. 그 동안 여러 연구자들이 비교구문에 대해 통사적, 형태적, 의미적으로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고찰하였지만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술어의 형태 범주, 구성 요소의 생략 문제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가 않다.

통사적으로 보면, 비교술어가 비교구문에서 비교결과의 역할도 한다. 형용사를 비롯하여 동사 등 다양한 품사가 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지만 비교구문의 통사구조와 의미의 영향을 받아 비교술어의 형태 범주가 많이 제한된다. 예를 들면 형용사와 같은 경우에는 오직 정도성을 가지는 형용사만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본고는 먼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를 대상으로, 비교술어의 품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품사 중에 어떤 품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차등비교구문은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내용, 비교표지, 비교술어 등의 요소로 구성된다. 이 구성 요소들이 비교구문에서 다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요소를 생략하는 현상도 있다. 예를 들면, '형은 나보다 크다'에서는 비교내용에 해당하는 '키'를 생략한 것이다. 본고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내용의 생략을 비롯하여,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생략 문제를 살펴보고, 구성 요소의 생략 이유를 밝힐 것이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가 다른 문법범주보다 활발하지 않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그 동안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는 주로 통사적인 연구와 의미적인 연구로 나누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 의미적인 연구가 통사적인 연구보다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통사적 연구가 많았지만, 점점 의미적 연구가 많아졌다.

통사적인 연구를 보면, 우선 김선희(1972)에서는 구문론의 입장에서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을 고찰하였다. 김선희(1972)에서는 우선 비교구문은 두 개 이상의 사물 상호간에 있을 정도의 대소를 비교, 고량한 결과를 표현하는 문법형식이라고 정의하고,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어느 한 점에 대해서 그 정도를 비교할 경우에는 동등한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며, 전자를 동등비교, 후자를 부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등비교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문상의 비교를 의미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사물 상호간에 있을 정도의 대소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을 'functor'비교라고 하고 동일물의 다른 성질에 대한 비교는 '명제선택비교'라고 하였다.[1] 이어서 functor비교구문 중심으로 비교의 대상은 명사구, 부사류로 나누어서 변형규칙을 설정, 적용해서, 기저상의 구조로부터 비교구문을 생성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선택할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을 유별하여, 기능 및 공기관계를 밝혔다. 비교표지 '보다'에 대하여 김선희(1972)는 서정수(1968)[2]에 따르면 '보다'는 차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두 개의 구문의 접속을 위한 기능표지로서, 또는 두 명제의 대조성을 제시하는 기능표지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선희(1972)는 비교구문의 두 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 첫째는 일차적인 '비교의 대상'으로 선택되는 어휘는 구문상에서의 선택 제한이 있다. 즉,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선택과 구문상에서의 공기관계는, '비교대상'을 선택하는 데 제약조건이 되는 것이다. 둘째, '비교구문'에서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일반적으로 모두 나와야 하지만, 동일문의 비교인 경우에는 비교주체에 비해서 비교대상의 생략의 빈도수가 높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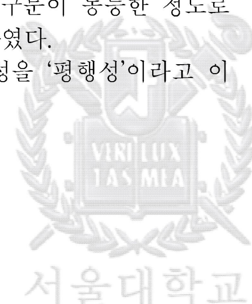
김정대(1994)에서는 '보다'구문을 중심으로 하여, 현대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비교구문의 분류, 형성원리, 기저 구조, 줄이기 절차 등의 문제를 포함하였다. 우선 '보다'구문은 '보다'가 비교소로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가에 따라 참된 비교구문과 의사 비교구문으로 나누어지고, 전자는 '통사론적으로' 기저 구조가 복문이면 순수 비교구문의 자격을 갖게 되고, 단문이면 준비교구문의 자격을 획득한다고 하였다.[3] 의사 비교구문의 유형에는 '-기보다' 구문과 '-느니보다' 구문으로 나누고, 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리고 형성원리의 평행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4] 한국어 비교구문의 기저적인 전형은

1) 천시권, 김종택(1971) <국어 의미론>: 어떤 표현이 다른 한 표현을 규정할 때, 첫째의 표현을 나중 표현의 조작사(funktor)라고 부르며, 규정된 표현을 항(argument)이라 한다.

2) 서정수(1986)에서 '보다'는 하나의 명사에 부가되어 그 명사와 다른 구문 요소와의 비교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라기보다는 두 문장을 비교할 때, 일종의 접속요소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하면, '보다'는 차등한 정도의 비교를 나타내는 두 개의 구문의 기능표지로서 접속요소 구실을 한다. 또한 '명제선택비교'에 있어서는 두 개의 명제에 대한 대조성을 제시함으로써, 명제선택의 강도를 나타내는 기능표지의 구실도 한다.

3) '보다'가 들어가는 구문은 비교구문으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모든 '보다'구문이 동등한 정도로 비교구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대는 '보다'구문에 대한 분류하였다.

4) 김정대가 차등비교구문 중에 선·후행절이 동일한 구성을 하게 되는 속성을 '평행성'이라고 이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선·후행절이 각각 단문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다시 그것이 내포문으로 가능할 경우와 내포문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서 논의하였다. 비교구문의 기저구조 문제에 대하여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로는 기저 생성설, 기저 공범주 설정설, 지우기 변형설 등을 제시하면서 앞의 두 가지 가설은 한국어 비교구문의 기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고 지우기 변형설로 비교구문의 기저구조 문제를 다루었다. 그 외에 차등비교구문의 중의성 문제도 살펴보았다.

오경숙(2004)에서는 의미적으로 후치사 비교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가지는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전통적으로 비교구문은 비교 결과에 따라 '동등비교구문'과 '차등비교구문'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만큼'비교구문과 '처럼'비교구문은 '동등비교구문'에 속하고, '보다'비교구문은 주로 '차등비교구문'에 넣지만 '만큼'비교구문과 '보다'비교구문이 한 범주로 묶어서 '처럼'비교구문과 별개의 범주로 분류되어야 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또 비교구문에 나타내는 의미적 특징은 비교 결과보다는 비교 대상과 더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이 논문에는 후치사 비교구문은 '정도비교를 나타내는 비교구문'과 '시건·상태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어서 오경숙 (2004)에서는 이 두 가지 비교구문을 각각 다시 '동등비교구문'과 '차등비교구문'으로 하위 분류하여 '만큼'비교구문, '만'비교구문, '보다'비교구문, '처럼' 비교구문의 특징과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 외에 정인교(1981)에서는 한국어 비교구문에서 중심이 되는 비교격조사를 검토해 보고 종래의 문법학자들에 의한 격조사의 분류가 다소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비교격 조사중에서도 '-보다 더-'의 구문을 중심으로 그 구문 특성과 함께 몇 가지 구문적 제약 및 비교구문의 일반적인 구문특성을 살펴보았다. 김승곤(1987)에서는 비교구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었다. 비교의 기본 조건, 비교형식, 비교형식이 어찌말로 되는 경우, 비교구문의 성분 생략 및 비교 요소의 문법적 구실 등을 논의하였다. 김승곤(1987)은 한국어 견줌 형식에는 토씨에 의한 것과 어찌씨에 의한 것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논의하였다. 정철주(1984)에

름을 붙였다. 그렇게 때문에 비교구문을 성립하게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바로 '평행성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서는 차등비교구문과 기준을 중심으로 차등비교구문의 기본 구조 및 유형 등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 논문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을 상태동사를 취하는 차등비교구문, 명사 서술어를 취하는 차등비교구문, 동작동사를 서술어로 하는 차등비교구문, 기분어귀가 생략된 차등비교구문, 최상급 차등비교구문으로 분류하였다. 이승명(1992)에서는 비교구문의 정의 및 구조를 살펴보면서 비교구문의 전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였다. 이 논문에서 비교술어에 대하여 비교구문을 이루는 서술어로는 모든 동사류가 다 쓰일 수 있으나 비교의 차등을 나타내어야 하기 때문에 대칭 상대어로 된 정태동사가 많이 쓰인다고 하였고, 또 대칭 상대어 가운데에서 극대칭 상대어에 속하는 정태 동사가 비교 구문의 서술어로 가장 빈번히 쓰인다고 하였다. 김규하(1995)에서는 한국어 비교구문이 변천해온 과정을 밝혔다. 여기서 동등비교구문과 차등비교구문으로 나눠서 각각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정인수(1998)에서는 '-보다 더-'구문을 중심으로 국어 차등비교 형용사 구문을 개방척도 형용사의 차등비교구문, 제한척도 형용사의 차등비교구문, 비대칭 척도 형용사의 차등비교구문, 단항척도 형용사의 차등비교구문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의미 양상을 고찰하였다. 하길종(1999)에서는 의미 중심으로 연구함으로써 한국어 비교구문을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비교구문에 쓰이는 어휘들의 특성과 비교와 비유의 특성, 비교격의 특성, 그리고 비교구문의 체계, 동등비교의 특성, 차등비교의 특성을 고찰, 정리하면서 비교구문의 체계를 정리하였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과 대상을 제시하고, 비교구문의 연구사를 살펴볼 것이다.

2장에서는 본고의 중심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차등비교구문의 기본 개념을 소개할 것이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비교의 개념,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 비교구문의 유형 등이다. 그리고 본고의 연구대상인 차등비교구문의 구성 요소, 형태 및 통사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3장부터는 본고의 중심내용으로서 먼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를 살펴볼 것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이다. 비교술어는 비교구문에서 서술어로 표현되는 부분이다. 본장에서 품사별로 비교술어를 살펴보고, 어떤 품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가를 밝힐 것이다.

4장에서는 차등비교구문에서의 요소 생략 문제를 제시하고, 구성 요소의 생략을 가능한 원인을 밝힐 것이다.

5장에서는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 비교구문의 기본적 논의

본고의 중심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비교구문의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2.1.에서는 비교의 기본 개념과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을 논의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비교의 개념이 많이 논의되었지만, 본고는 그 개념을 보완하여 다시 정립할 것이다. 비교는 두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아무 관계가 없는 두 대상은 비교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을 살펴볼 것이다. 2.2.에서는 비교구문의 분류 문제를 제시하고, 2.3.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의 구성 요소를 소개할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구성 요소는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표지, 비교차, 비교소, 비교결과 및 비교내용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차등비교구문의 형태 및 통사구조를 설명할 것이다.

2.1. 비교의 개념 및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

2.1.1. 비교의 개념

비교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언어 활동이자 지적 활동이므로 모든 자연 언어에는 비교구문이 존재한다(Fu, 1978). 비교를 통해서 두 사물의 성질, 정도 차이 및 같음과 다름을 쉽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비교'가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두 교실의 크기를 판단할 때, 두 교실의 크기가 '같다', '비슷하다', '마찬가지다', 또는 '다르다', '똑같지 않다', '어느 교실 더 크다(작다)'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비교구문을 사용하여 두 사물의 어떤 특성의 같은 점이나 차이점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1) 김 대통령이 제시한 보안법 개정 방향도 그간 국민회의에서 논의해온 것과 비슷하다.

(2) 오늘 날씨가 어제 날씨만큼 따뜻하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 그 당시에는 고서점 수가 오히려 일반 서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책 출판이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이다.
(4) 반에서 그녀의 성적이 제일 낮다.

위 예문 중에 (1)과 (2)는 동등비교구문이고, (3)과 (4)는 차등비교구문이다. (1)에서 서술어 '비슷하다'를 통하여 김 대통령이 제시한 보안법의 개정방향은 국민회의에서 논의한 것과 부등하다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2)에서 '만큼'이라는 비교표지를 통하여 어제의 기온과 오늘의 기온은 비슷하다고 알 수 있다. (3)에서는 정도부사인 '더' +형용사 '많다'를 통하여 두 시간대에는 어느 서점 수가 더 많다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4)에서 비교표지 '제일' + '낮다'를 통하여 그녀의 성적은 반에서 꼴지인 것을 알 수 있다. (3)과 (4)는 모두 차등비교구문이지만 이들을 다시 하위 분류를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면 (3)은 우열비교구문에서의 우등비교이고 (4)는 최상급 비교이다.

또는 한 사물이지만 다른 환경, 시간대에서 나타나는 성질, 정도 차이 및 같음과 다름을 알아볼 때도 '비교'를 많이 사용한다.

(5) 확장 공사했지만, 이 교실의 크기가 전과 똑같다.
(6) 이 교실은 확장 공사하기 전보다 크다.
(7) 누나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은 지난 학기와 똑같다.
(8) 올해 상반기 국가정보원에 의한 합법적 감청이 4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6% 증가했다.

위 예문 중에 (5)와 (6)에서는 같은 교실을 대상으로 확장 공사 전과 확장 공사 후에 교실의 크기에 대해 비교하였다. (5)에서 확장 공사했지만, 서술어 '똑같다'를 통하여 교실의 크기는 변화가 없다는 정보를 알 수 있고, (6)에서 형용사 '크다'를 통하여, 공사 후에 교실이 커졌다는 변화를 알 수 있다. 예문 (7)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시간대를 대상으로 성적을 비교하는 것이고, (8)은 합법적 감청을 대상으로 다른 시간대에서 건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처럼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 서로 나타나는 상태, 성질, 모양 등의 공통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및 차이점, 혹은 한 사물의 서로 다른 환경, 시간대에서 나타나는 성질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비교'를 많이 사용한다. 홍윤표(1994)는 '비교는 사물의 성질 및 양 또는 관계의 다양한 등급을 표시하기 위해 성립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김봉모(1990)는 '견줌은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의 잘 알려지지 아니한 막연한 사실에 대하여 들을이에게도 비교적 익숙하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비교하여 유사성과 차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김정대(1993)는 '한 사물의 상태나 속성, 혹은 양태를 어떤 기준과 관련시키는 일'로 보았다. 박신순(1991)는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 즉 속성을 관련지어 관찰하는 사고 행위'로 정의한다. 김정아(1998)는 '비교는, 정보의 획득 및 획득된 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각, 사유, 판단 등의 행위가 다양하게 얽혀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인지작용'이라고 한다. 하길종(1999)는 '견주는 사물들의 상태, 성질, 모양 등과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여 인지한 다음, 인지한 정보에 의해서 두 비교 대상의 관계와 특성을 밝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5)]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비교의 정의를 정리하면, 비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비교란 두 개 및 그 이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 성질, 모양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 혹은 한 사물은 다른 환경, 시간대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행위이다. 비교구문은 비교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형식이다.[6)]

5) 그 외에 安井稔(1976)는 비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의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그 차원에 있어서 무엇과 무엇이 서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하는 것이므로 비교의 차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점이 아니고 폭을 가진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철주(1984)는 비교란 두 개 이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나 속성의 정도를 견주어 그 대소를 구별하는 문법표현형식이라고 하였다. 김성란(1986)는 비교구문이란, 화자의 세계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한 개체의 다른 속성이나 서로 다른 개체 간의 유사한 속성에 대한 우열의 정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국어의 한 특수한 구문형식이라고 하였다.

6) 이승명(1992)는 두 개의 사상을 서로 견주어 볼 때 양자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거나 대소, 장단, 우열, 심천, 원근, 미추…등의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발견된 정도의 차이를 표현하는 문법 형식을 비교 형식이라 하고 이 비교 형식으로 이루어진 통사 구조를 비교구문이라고 하였다. 김선희(1972)는 비교구문은 두 개 이상의 사물 상호간에 있을 정도의 대소를 비교, 고량한 결과를 표현하는 문법형식이라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1.2.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

앞에서 비교란 두 개 및 그 이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 성질, 모양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 혹은 한 사물은 다른 환경, 시간대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행위이고, 비교구문은 비교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법형식이라고 하였다. 비교의 개념을 통해서 비교구문이 성립하기 위해 첫 번째 조건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우선 비교되는 둘 이상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한 사물은 다른 환경, 시간대에서 비교할 경우에는 이 두 가지 환경 혹은 시간대는 각각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두 대상만 있으면 비교구문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교되는 두 대상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이점도 갖춰야 서로 비교관계가 성립된다.

(9) 이 교실은 저 교실보다 더 크다.
(10) *이 교실은 저 학생보다 더 크다.

예문 (9)에서 '이 교실'과 '저 교실'은 둘 다 '명사, 사물, 공간'등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두 교실의 크기, 디자인, 내부 인테리어 등에서 다를 수 있다. 이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추면 서로 비교관계를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10)에서 '교실'과 '학생' 은 둘 다 명사이지만 '교실'은 '공간'이고, '학생'은 '인간' 이다. 둘이 같은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비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이상 논의를 보면 비교 구문의 형성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비교되는 대상이 둘 또는 그 이상 있어야 비교할 수 있다. 둘째,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둘 다 같은 자질을 가지고, 같은 범주에 속해야 된다.[7]

7) 양배철(1983)는 비교구문의 성립 조건은 의미론의 조건에는 논리적 조건과 화용론적 조건이 있다고 하였다. 논리적 조건이란 전제가 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용론적 조건이란 두 사물의 속성의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그 정도차가 너무 크면 비교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2. 비교구문의 유형

2.2.1. 유형 분류

선행 연구를 보면 한국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는 통사적인 연구가 의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 비교구문의 분류 문제에 대한 연구도 통사적인 분류보다는 의미적인 분류가 훨씬 더 발달하고 있다. 우선 김선희(1972)에서는 비교구문을 구문상으로 동등비교와 부등비교를 나누고, 부등비교를 다시 우월비교와 열세비교를 분류하였다. 그리고 의미론의 입장에서 비교구문을 functor비교와 명제선택비교를 나누었다. functor비교는 일반적 차등비교이고, 명제선택비교는 동일물의 다른 성질에 대한 비교라고 한다. 정철주(1984)에서는 두 개 이상의 사물이 가진 상태나 속성의 정도를 비교할 경우에 그 정도가 대등한 경우와 차이가 나는 경우로 나누고, 이어서 비교구문을 대등비교와 차등비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차등비교구문을 다시 '-보다 더'에 의한 구문을 '우등비교구문'으로, '-보다 덜'에 의한 구문을 '열등비교구문'으로 구별하였다. 김승곤(1987)에서는 조사와 부사의 기능에 따라 비교구문을 구분하였다. 즉 '처럼'에 의한 것은 비슷한 비교, '같이'에 의한 것은 같은 비교, '보다'에 의한 것은 우위급 비교와 으뜸꼴 비교로 나누었다. 김정대(1993)에서는 '보다'구문을 통사론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우선 '보다'가 비교소로 가능한가에 따라 차등비교구문과 의사비교구문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차등비교구문을 다시 통사적으로 순수비교구문과 준비교구문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비교구문에 대한 의미적인 분류도 하였다. 김정대(1993)는 비교구문을 우선 최상급구문과 비교급구문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에 최상급은 다시 부사에 기대는 최상급구문과 비교소에 기대는 최상급구문으로 하위 분류하였다. 비교급구문도 다시 동등비교구문과 차등비교구문과 하위 분류하였다. 차등비교구문을 또 다시 우등비교구문과 열등비교구문으로 나누었다.[8)]이승명(1992)에서는 비교되는 두 대상의 정도성 차이에 따라 동등과 차등으로

8) 김정대(1993)는 동등비교를 다시 기저복문과 기저단문으로 나누고, 우등비교와 열등비교를 각각 비교소에 기대는 것과 명사류에 기대는 것으로 나누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구분하고, 차등을 다시 우세와 열세로 구분하였다. 하길종(1999)에서는 우선 비교되는 두 대상의 정도성 차이에 따라 동등과 차등으로 구분하였다. 등동비교구문을 다시 단순 동등비교와 유사 동등비교로, 차등을 다시 단순 차등비교와 정도 차등비교로 나누었다. 그리고 정도 차등을 다시 우열비교과 최상급비교로 하위 분류하였다. 오경숙(2004)에서는 기준의 분류와 달리 후치사구에 의한 비교구문의 유형 분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정도비교를 나타내는 비교구문과 사건 · 상태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구문으로 나누고, 둘이 다시 각각 동등비교구문과 차등비교구문으로 분류하였다.

본고에서는 비교구문을 통사적 구분과 의미적 구분으로 분류한다. 우선 통사적 비교구문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교격조사 '-보다'가 포함되는 비교구문이다.

(11)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1000미터 더 높다.

예문 (11)을 보면 '보다'라는 비교표지가 들어가 있고, 또 비교대상 '관악산'도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1)을 보면 설악산은 관악산과 비교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11)은 통사적 비교구문으로 말할 수 있다. 반면에 아래 예문 (12)의 경우는 (11)과 다르다.

(12) 이 교실은 크다.

어느 강의실을 보고, '이 교실이 크다'라는 표현은 자주 한다. 여기서 비교대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크다'는 절대적으로 클 수 도 있고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예문 (12)에서 비교대상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말하는 이가 교실의 크기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평소에 보던 일반 교실과 비교한 다음에 교실의 크기를 평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은 '이 교실이 크다'라고 말하면 이 교실은 본인이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실보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고, 대학생은 '이 교실이 크다'라고 말하면 이 교실은 절대적으로 크다고 판단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보통 대학교 강의실은 초등학교 교실보다 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처럼 (12)와 같은 구문은 해당 사물은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비교결과를 내리지만 비교대상과 비교표지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인 비교구문으로 취급할 수 없다.

(13) 철수만 밥을 많이 먹었다.

최현배(1946:887)에서는 '는'의 의미를 '다름', '도'는 '동일', '만'은 '홀로', '밖에'는 '금줄'이라는 뜻으로 각각 해석하였다. 채완(1991)에서는 이 보조사들은 다분히 비교의 의미를 띠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예문(13)은 '다른 사람이 밥을 적에 먹었다'라는 발화 전제가 포함되어 있다. (13)은 아래 예문 (14)로 해석할 수 있다.

(14) 다른 사람은 밥을 적게 먹었지만 철수만 (밥을) 많이 먹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철수와 다른 사람이 밥을 먹는 양에 대한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14)도 역시 통사적인 비교구문으로 간주할 수 없다. 비교구문은 비교의 의미만 가지만 된 것이 아니라, 비교구문이 필요한 요소도 갖추어야만 비교구문에 속할 수 있다. 예문(13)에서는 비교구문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명시하지 않고, 비교표지 '보다'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비교구문으로 볼 수 없다.

이어서 의미적으로 비교구문을 분류해보자. 우선 동등비교과 차등비교로 나누고, 차등비교는 다시 우열비교와 최상급 비교로 나눌 수 있다. 동등비교는 비교되는 두 대상의 상태, 성질, 모양 등의 유사점을 고찰하는 것이고, 차등비교는 그 차이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최상급 비교는 비교대상들 중에, 비교주체가 비교되는 특성의 정도성이 제일 높거나 낮은 점을 표현하는 것이다.[9] 앞에서 제시된 예문(2), (3), (4)를 다시 인용한다.

---

9) 김선희(1972)에서 '두 개 이상의 사물을 어느 한 점에 대해서 그 정도를 비교한 결과 동등한 경우는 동등비교이고, 부등한 경우는 차등비교'라고 보았고, 이승명 (1992)에서는 '두 사상의 견줌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를 동등이고, 발견할 수 있는 경우를 차등'이라고 하였다. 홍윤표(1996)는 '두 사물의 차등여부를 비교할 때 같은 경우는 동등이고, 틀릴 경우는 차등'이라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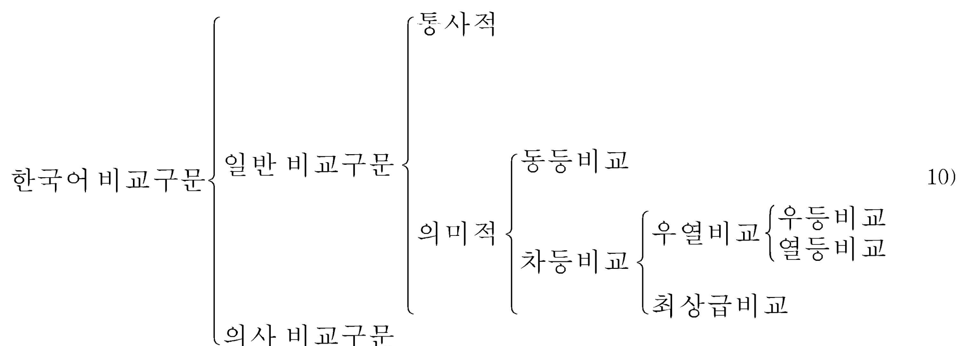
(2) 오늘 날씨가 어제 날씨만큼 따뜻하다.

(3) 그 당시에는 고서점 수가 오히려 일반 서점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데, 아마도 책 출판이 여의치 않은 사정 때문이다.

(4) 반에서 그녀의 성적이 제일 낮다.

위에 예문을 보면, (2)는 동등비교이고, (3)은 차등비교이고, (4)는 최상급비교이다.

이상 한국어 비교구문의 분류는 아래 도표와 같다.



2.2.2. 의사(擬似) 비교구문[11]

앞에서 비교는 두 개 및 그 이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 성질, 모양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 혹은 한 사물은 다른 환경, 시간대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행위라고 하였다. 비교구문의 여러 유형을 살펴보

10)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한국어 비교구문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 큰 차이가 거의 없다. 본 분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며 한국어 비교구문을 다시 분류하였다. 김정대(1992)에서 비교구문을 통사적으로 명시적 비교구문과 내재적 비교구문으로 분류하였다.

11) 김선희(1972)는 의사 비교구문은 명제선택비교구문이라고 하였다. 본고는 김정대(1992)에서 사용한 '의사비교구문'을 따르다. 선행연구에서 의사비교를 많이 논의하였으니 본고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면, 그 중에 두 사물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밝히지 않는 비교구문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교구문은 의사비교구문이라고 한다. [12]

(15) 이번 '춤·춘향'에서는 춘향전의 줄거리를 그대로 따라가기보다는 인상적인 장면만 골라내 선보인다.

(16) '붉은 악마' 광고는 한 기업이 상업적으로 만들어낸 광고라기보다 캠페인에 더 가깝다.

(17) 대표이사를 맡아 1년 5개월 동안 경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경영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관리 부재가 부도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예문 (15), (16), (17)과 같은 비교구문의 형식이 일반 차등 및 동등비교구문과 비슷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위 예문 중에 두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물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13] 예를 들면, (15)에서는 이번 '춤·춘향'에서는 인상적인 장면을 골라낸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정대(1993)에서는 '-기 보다'와 같은 의사 비교구문은 앞선 내용은 약하게 부정되는 반면, 그에 뒤따르는 내용은 긍정된다고 하였다.

이상 논의를 보면, 의사비교구문은 일반비교구문과 달리 두 대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동등 혹은 차등비교구문으로 분류하기가 어렵다. 본고는 그것을 일반비교구문과 동급하여 분류하였다.

2.3. 차등비교구문

앞에서 차등비교란 두 개 및 그 이상의 사물, 혹은 한 사물은 다른 환경,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 성질, 모양 등의 차이점을 고찰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

12) 하길종(1999)에서 의사비교는 비교와 유사한 형식이지만, 비교처럼 두 대상의 같은 점과 차이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주체의 특성을 강조하는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13) 하길종(1999)에서 의사비교는 '비교와 유사한 형식으로 비교주체의 특성(비교주체의 특성에는 서술자 자신의의 판단이나 의지, 또는 비교주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의지가 포함된다)을 강조하거나, 또는 비교주체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다. 2.3.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의 구성 요소, 형태 및 통사구조 등 기본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2.3.1. 구성 요소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우선 예문(18)을 통하여 비교구문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자.

(18)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이)가 1000미터 더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에 해당하는 '설악산'은 비교구문의 비교주체라고 한다. 비교주체는 주로 주어로 나타난다. ②에 해당하는 '관악산'은 비교대상이라고 한다, 비교대상은 비교구문 중에서 주로 비교기준이라는 역할을 해서 흔히 '비교기준'이라고도 부른다. ①과②를 합해서 '비교항' 이라고 한다. ③에 해당하는 '보다'는 차등비교구문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통 '비교표지'라고 한다. '보다'는 주로 '비교대상' 뒤에 붙어서 나타난다. ④에 해당하는 '높이'는 비교내용이다, 여기서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괄호로 표시한다. ⑤에 해당하는 '1000미터'는 비교차라고 한다. 즉 비교주체와 비교대상 서로 비교할 때 그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다. ⑥에 해당하는 정도부사 '더'는 비교소라고 한다. 최현배(1977)에서는 차등비교의 다름에 대해서 견주는 다름에는 여러 가지의 정도 다름이 있으니 그 정도를 따라서 특별히 어찌씨가 쓰히느니라 곧 못 미치는 것에는 '덜', 지나가는 것에는 '더'가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차등비교구문에서 정도부사 '더' 는 생략할 수 있지만 '덜'을 생략할 수 없다.[14] ⑦에 해당하는 '높다'는 비교술어라고 한다, 비교술어는 비교구문에서

14) 황미향(1995)은 정도부사 '더/덜'은 단순히 '정도부사'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차등의 뜻을 지니는 비교구문에서 그 정도가 높음을 견주는 것인지 낮음을 견주는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요소의 구실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최현배(1965)에서 차등비교구문에서 쓰이는 부사 '덜,더'에 대해 견주는 다름에는 여러 가지의 정도의 다름이 있나니, 그 정도를 따라서 특별한 어찌씨가 쓰이느니라. 곧, 못 미치는 것에는 '덜', 지나가는 것에는 '더'들이니라고 하였다. 김선희(1976)에서는 '더'가 수의적으로 생략되는 경우는 의미상으로 별 차이를 가져오기 않기 때문이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서술어를 역할을 한다.[15] 비교술어를 3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요소 중에 ①②③④⑦은 차등비교구문의 기본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내용과 비롯하여 다른 구성 요소가 차등비교구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략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다. 이에 대해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김정대(1993)는 ①의 '설악산'은 '비교어구'로, '관악산'은 '기준어구'라고 부른다.[16]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는 짝이 되기 때문에 이 둘을 합해서 '비교짝'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17] 그리고 '보다'는 비교의 형태소, 즉 비교소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본고는 김정대(1993)와 입장과 달리 '보다'를 보편적으로 '비교표지'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따르다. 여기서 비교표지에 해당하는 '보다'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를 보면, 지금까지 '보다'에 대해 크게 세 가지의 입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최현배(1937)를 비롯하여, 박승빈(1935), 이숭녕(1956), 허웅(1971), 김승곤(1987), 임홍빈(1995), 이익섭 · 채원(1999), 남기심(2001)등에서 '보다'를 비교격조사로 처리하였다.[18] 최현배(1937)에서는 토씨의 갈래를 자리토씨, 도움토씨, 이음토씨, 느낌토씨로 나누고 지리토씨는 다시 어찌자리토(부사격 조사)를 분류한 후 그 쓰임에 따라 곳자리(처소격), 연장자리(도구격), 저격자리(자격겨), 견줌자리(비교격), 함께자

고, 다만 문체상의 변이로 본다고 하였다. 본고는 정도부사 '더/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다.

15) 비교구문에서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바로 비교술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서술어와 비교술어는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예: 철수는 영희보다 더 빨리 달린다.

위 예문 중에 통사적 서술어는 '달리다'이고 의미적 비교술어는 '빨리'라고 간주할 수 있다. 즉 문장 중에 서술어와 비교술어는 다르다. 이 부분에 대해 3장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

16) 그동안 여러 학자들이 비교구문중의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에 대한 사용하는 용어를 다소 틀리지만 큰 차이가 거의 없다. 김선희(1972)에서는 이들은 '기준어구, 비교어구'라는 현을 썼고, 김정아(1986)에서는 '비교의 기준, 비교의 주체'라고 표현한다. 본고는 하길종(1999)에서 나온 '비교주체, 비교대상' 이라는 표현을 택하였다.

17) 김정대(1993)는 비교짝이라는 말은 Hale(1970)에서 처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18) 최현배(1971)에 의하면 '비교격조사'는 임자씨 아래에 붙어서 그것과 다른 것과를 서로 견줌을 보이는 토를 이름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비교격조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과, 와, 하고, 처럼, 같이, 만큼, 만, 보다, 에서.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리(공동격), 바꾸힘자리(변성격)로 세분하였다. 그 후에 최현배(1942)에서는 견줌자리토를 다시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견줌자리
  - 모양
    - 두루 : 과, 와, 하고
    - 같음 : 처럼, 대로, 같이
  - 정도
    - 비등함 : 만큼
    - 차등함 : 보다, 에서

[19]

두 번째 견해는 서정수(1968), 김선희(1976), 정인교(1980)에서 '보다'를 접속사를 보았다. 서정수(1968)에서는 비교표지 '보다'의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보다'는 차등비교구문에서 일종의 접속요소 구실을 한다고 하였고, 즉 차등비교를 나타내는 두 개의 구문의 기능표지로서 접속요소 구실을 한다고 더 붙였다. 그리고 명제선택비교구문에서 두 개의 명제에 대한 대조성을 제시함으로써, 명제선택의 강도를 나타내는 기능표지의 구실도 한다고 고찰하였다.[20] 김선희(1976)에서 비교표지 '보다'에 대해 역시 서정수(1968)와 같은 입장으로 가졌다. 정인교(1980)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의 구문 특성은 주문하고 내포문으로 설정하고, '보다'를 비교격조사로 인정하면서도 구문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주문과 내포문과의 관계를 지워주는 구문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Smith(1961)는 '보다'라는 요소가 붙어 일종의 부사절을 이루기 때문에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21]

마지막으로 김정대(1993), 장시은(1994), 오경숙(2004), 임동훈(2006)에서는 '보다'를 보조사로 처리하였다. 특히 장시은(1994), 오경숙(2004), 임동훈(2006)은 '보

19) 최현배(1971)에서는 동일한 조사 형태라도 그 용법에 따라 다른 격으로 나타날 수 도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와/과, 에서'는 견줌자리토(비교격조사)도 될 수 있고, 함께자리토(여동격)와 곳짜리토(처소격조사)도 될 수 있다.

20) 서정수(1968) <국어 의존명사의 변성문법적 분석>, 국어국문학 42,43

21) Carlota S.Smith (Language 37.1961)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다'를 보조사 중에 후치사라고 보고 있다.[22] 임동훈(2006)에서 '보다'는 현대국어를 다루는 거의 모든 논의에서 비교격조사로 간주되었지만, 그 문법적 기능, 분포, 다른 조사와의 결합관계, 역사적 발달 단계 등에서 격조사로 보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그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로 간주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임동훈(2006)에 의하면, 격조사로 보기 어려운 특징이 셋 가지가 있다. 첫째는 '보다'가 문법적 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여러 격 위치에 나타난다. '보다'는 특정한 격 위치에만 나타날 것이 아니므로 격조사로 보기가 어렵다고 하였다.[23] 둘째는 '보다'는 일부 어미 형식 뒤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다른 의미 격조사 뒤에도 행할 수 있다. 격조사는 주로 명사나 명사구, 혹은 명사구 기능을 하는 절 뒤에 결합하지만 '보다'는 다른 의미 격조사나 동사 활용형 뒤에도 결합하는 현상이 나타난다.[24] 셋째는 '보다'는 부사의 용법도 있다. 이는 '보다'가 격조사보다 보조사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 있음을 잘 보여 준다고 하였다.[25] '보다'의 문법적 지위를 논의하기 전에 조사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조사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조사와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나지 않고 특수한 뜻으로 더해 주는 보조사로 나눌 수 있다.[26] 격조사는 주로 명사 상당어구와 결합하고, 보조사는 명사 상다어구 뿐만 아니라, 용언의 활용형 및 부사어 등과도 결합

22) 임동훈(2006)은 보조사를 뒤에 다른 조사가 올 수 있느냐의 여부, 의미상의 지배 영역이 선행어를 넘어 확장될 수 있느냐의 여부, 의미적 추상성의 정도나 문법화 단계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 후치사와 첨사로 구분하는 문법 모형을 받아들인다면 '보다'는 보조사 중에서도 후치사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하였다. 오경숙(2004)는 '보다'는 비교격조사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실사로부터 문법화 되었다는 점과 동사에 의하여 선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23) (8)ㄱ. 철수는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존경한다.
ㄴ. 철수는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선생님을 존경한다.
ㄷ. 철수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선생님을 존경한다.

임동훈(2006)에서는 (8ㄱ)에서 '보다'에 선행하는 '부모님'은 (8ㄴ)에서 보듯이 주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8ㄷ)에서 보듯이 목적격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24) 임동훈(2006): (15ㄷ) 부모님과보다 친구가 지내니 편하다.
이호승(2008): (9ㄴ) 그는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큰 존경을 받았다.

25) 임동훈(2006): (19ㄴ) 보다 빠르데 달려라.(부사)
(19ㄴ′) 철수보다 빠르게 달려라.(조사)

26) 학교문법에서는 조사를 크게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로 나눠서 다루어 왔다. 접속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조사이다. 예를 들면 '와/과, 하고, 이며, 에다, 이랑' 등이 접속사에 속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할 수 있다. 본고는 비교표지 '보다'는 최현배(1937)의 주장에 따라 비교격조사로 취급한다. 그 이유는 우선 '보다'앞에 나오는 비교대상은 명사상당어구만 국한되어 있다, 즉 용언의 활용형 및 부사어 등은 '보다'앞에서 거의 나타나지 못한다.[27]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는 명시적 차등비교구문에서 생략되지 못한다는 점도 격조사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28] 보조사는 문장에서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만 달라지지만, 통사적으로 보면 비문이 아니다. 그러나 명시적 차등비교구문에서 '보다'를 생략하면 해당 구문이 비문이 될 것이다. 즉 비교표지 '보다'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이점에서 격조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29]

2.3.2. 형태 및 통사 구조

차등비교구문은 두 사물은 어떤 성질에 대한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비교할 때, 상태, 성질, 모양 등은 한 쪽보다 다른 한쪽의 정도가 강하거나 약함을 파악하는 것이다.[30]

(19)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

---

27) 이호승(2008): (9ㄴ) 그는 살아서보다 죽어서 더 큰 존경을 받았다. 이승호는 비교란 동등한 성격을 갖는 구성을 비교 댜상으로 삼기 때문에 (9ㄴ)의 '살아서'는 '죽어서'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였다.

28) 바교구문은 통사적으로 명시적인 비교구문과 내재적 비교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

29) 예를 들면: ㄱ. 철수가 학교에서 공부한다.
ㄴ. 누나가 동생보다 똑똑하다.

(ㄱ. ㄴ) 중에 '에서, 보다'를 생략하면 모두 비문이 된다.

ㄱ' *철수가 학교 공부한다.
ㄴ' *누나가 동생 똑똑하다.

30)하길종(1999)에서는 우열비교구문에 대한 비교주체가 비교대상에 비해서 비교되는 특성의 정도성이 우위의 위치에 있을 때는 우세 비교구문이고, 비교주체가 비교대상에 비해서 비교되는 특성의 정도성이 열등의 의치에 있게 될 때는 열세 비교구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상급 비교구문에 대한 국어의 최상급은 비교주체가 비교대상들에 비해서 그 특성의 정도성의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이때 비교주체가 비교대상에 비해서 정도성이 제일 높은 위치에서 최상이 되든, 정도성이 제일 낮은 위치에서 최상이 되든 두 위치 중에서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20)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더 높다.
(21) 관악산은 설악산보다 덜 높다.
(22) 관악산은 설악산보다 낮다.

예문 (19)와 (20)은 우등비교구문이고, (21)은 통사적인 열등비교구문이고, (22)는 의미적 열등 비교구문이다. 우등비교구문에서 비교소인 '더'를 생략할 수 있지만, 열등비교구문에서 나타나는 '덜'을 생략할 수 없다. 우등비교는 비교주체가 비교대상보다 그 차이의 정도성이 우위의 위치에 있을 때이고, 반면에 열등비교는 비교주체가 비교대상보다 그 차이의 정도성이 열등의 위치에 있을 때이다. (19)와 (20)에서 '설악산'은 비교주체이고, '관악산'은 비교대상이다. 비교술어 '높다' 및 '더'를 통하여 (19)와 (20)은 우등비교구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면에 (21)에서 비교소 '덜'을 통하여 통사적인 열등비교구문이라고 할 수 있고, (22) 중에 비교술어 '낮다'를 통하여 의미적 열등비교구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상 논의를 보면 차등비교구문의 기본 형태를 체계화를 시킬 수 있다.

NP_1는 NP_2보다 (더/덜) V하다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위치를 바꾸면,

NP_2보다 NP_1는 (더/덜) V하다

여기서 NP_1과 NP_2는 명사나 명사어구를 해당하고, 우등비교구문에서 '더'를 나타낼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지만, 통사적인 열등비교구문에서는 '덜'을 나타내야 한다. 그리고 V는 동사, 형용사 혹은 다른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를 해당한다.
이어서 차등비교구문의 통사구조를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한국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중에 비교구문의 구문적 연구가 더 뜸하다. 비교구문에 대한 통사적 연구사를 살펴보면, 국외에 영어 비교구문에 대해 Smith(1961)에서 주장한 접속설과 Lees(1961)에서 논의한 내포설이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있다. 국내에서는 서정수(1968)에서 주장한 접속 요소설이 있다. Smith(1961)에서는 비교표지 'than'은 접속사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을 해서 비교구문의 통사구조를 접속문으로 분석하였다. Smith의 주장을 한국어 비교구문에서 도입하여 예문 (20)을 분석하자.

(20)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더 높다.

예문 (20)을 분해하면,

(20′ㄱ) 관악산은 높다.
(20′ㄴ) 설악산은 더 높다.

(20′ㄱ)과(20′ㄴ)을 연결하면,

(23) 설악산은 관악산(높다)보다 더 높다.

예문 (20)은 비교표지 '보다'를 사용하여 (20′ㄱ)과 (20′ㄴ)을 연결하는 구문이다. 즉 Smith(1961)에서는 비교표지 'than'은 두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주장하고, 비교문의 통사구조를 접속문으로 간주하였다.[31] 그러나 Lees(1961)에서는 영어 비교구문의 통사구조를 내포문으로 분석하였다. Lees의 주장을 따라서 한국어 비교구문을 분석하면 (20′ㄴ)은 주문으로 간주하고, (20′ㄱ)은 내포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표지 'than'은 주문과 내포문을 지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국내에서 김정대(1993)는 다른 시선으로 비교구문의 통사 구조를 보고 있다. 김정대(1993)에서는 비교구문은 내포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논의하였다. 비교구문은 내포문

31) 권재일(1992): '서술기능을 한 번 수행하는 문장구성을 단순문 구성, 서술 기능을 두 번 이상 수행하는 문장구성을 복합문 구성으로 체계화하였다. 복합문 구성은 다시 상위문이 하위문을 관할하는 방식에 따라서 하위유형으로 체계화했는데, 상위문이 하위문을 다른 교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하는 복합문 구성을 접속문 구성으로, 상위문이 하위문을 명사구나 동사구를 통하여 간접 관할하는 구성을 내포문 구성으로 체계화하였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교구문을 이루는 선 · 후행절이 문말 어미의 보충어 위치를 차지하는 구문이라고 하였다. 이런 경우는 주로 계사구문, 형용사 구문, 타동사 구문이 있다. 내포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 비교구문은 주로 명사형 어미 '음'과 관형형 어미 '은'이 들어가는 구문이다.[32] '보다'를 통하여 (20ㄱ)와 (20'ㄴ)을 연결하면 예문 (23)이 된다.

(23) 설악산은 관악산(높다)보다 더 높다.

예문 (23)중에 '설악산 더 높다'는 주문이고, '관악산 높다'는 내포문이다. 그리고 내포문에서 주문과 일치적인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여기서 내포문의 동사를 생략되면 바로 예문 (20)이 된다.

(20)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더 높다.

2.4. 요약

제2장은 비교구문의 논의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기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았다. 먼저 2.1.에서 비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을 논의하였다. 비교는 두 개 및 그 이상의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태, 성질, 모양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 혹은 한 사물은 다른 환경, 시간대에서 가지고 있는 성질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행위이다. 비교되는 대상은 같은 자질을 가지고, 같은 범주에 속해야 하면 서로 비교할 수 있다. 2.2.에서 비교구문을 분류하였다. 우선 한국어 비교구문을 일반비교구문과 의사비교구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반비교구문은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상태, 성질, 모양 등은 가지고 있는 유사점,

32) 김정대(1993)에서 비교구문을 내포문으로 해석하는 구문이 다음과 같은 구문이라고 하였다.

(28)나. 아버지가 반디보다 더 한결이가 책을 좋아함을 안다.
(29)나. 한별이가 형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혹은 한 쪽보다 다른 한 쪽의 정도가 강하거나 약함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사비교구문은 일반비교구문과 달리 한 사물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반비교구문은 다시 통사적과 의미적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의미적 분류는 또 다시 동등비교와 차등비교로 나눌 수 있다. 2.3.에서 본고의 논의되는 차등비교구문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차등비교구문에서 나타나는 용어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차등비교구문의 형태 및 통사 구조를 살펴보았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앞에서 차등비교구문의 형태구조는 'NP₁는 NP₂보다 V하다'나 'NP₂보다 NP₁는 V하다'라는 격식으로 나타난다고 살펴보았다.[33] 여기서 서술어 'V하다는 비교결과의 역할도 한다. 표면적으로 볼 때, 차등비교구문의 비교결과 겸 서술어가 주로 형용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 등 다른 품사도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비교구문의 통사구조와 의미의 영향을 받아 부사, 관형사 등 품사는 차등비교구문의 통사적인 비교술어가 될 수 없지만, 의미적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본장에서는 'V하다' 자리에 가능한 형용사, 동사를 비롯하여, 의미적인 비교술어가 되는 부사와 관형사까지 살펴볼 것이다.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차등비교구문의 비교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사물은 어떤 성질을 비교하느냐에 따라 비교술어의 품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두 사물을 비교할 때, 보통 수량, 성질, 상태, 혹은 어떤 행위나 동작의 정도성 등을 많이 비교한다.

(1)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
(2) 우리 어머니는 큰고모보다 더 미인이다.
(3) 철수는 영희보다 빨리 달렸다.
(4) 전자상거래와 온라인 광고의 호조에 힘입어 상반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4% 증가한 911억 원을 기록하였다.
(5) 동생의 합격 소식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기뻐하신다.

예문 (1)과 (2)는 두 사물의 성질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다. 성질은 사물의 모양, 무게, 크기, 높이, 길이 등 특징을 포함한다. (1)에서 설악산과 관악산의 그 많은 성질 중에서 높이를 비교한 것이다. 예문 중에 비교내용인 '높이'가 생략되어 있지만 비교술어 '높다'을 통하여 두 산의 높이에 대한 비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3) 본고에서는 의미적으로 차등비교구문을 우열비교와 최상급비교로 나누었지만, 3장부터 나온 차등비교구문은 주로 우열비교구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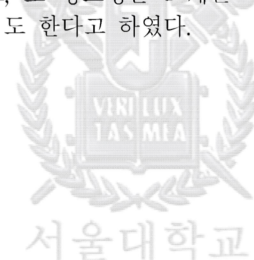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차등비교구문은 사물을 여러모로 비교하지만 그 중에서 성질에 대한 비교를 제일 많이 한다. 품사 중에서 형용사가 사물의 성질을 표현하는 데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차등 비교구문의 비교술어는 주로 형용사로 나타난다. (2)는 두 사람의 미모의 정도성에 대한 비교이다. 서술어는 지정사 '이다'로 나타나지만 앞에 선행사인 '미인'과 같은 형용사성 명사를 붙여야 한다. 예문(3)은 두 사람의 어떤 동작에 대한 그 행동을 하는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수량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동사가 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없지만 예문(3)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동사 앞에 부사 '빨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동사는 보통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앞에 부사가 나오면 해당 동작에게 일정한 정도성을 부여한다. 이점에 대한 논의는 3.2.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예문(4)는 매출의 양을 비교하는 구문이다. 증가하는 '폭'도 일종의 정도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증가하는 폭은 수량변화와 직접적인 관련되어 있는 비교술어 '증가하다'와 같은 변성동사가 와야 한다. 그리고 예문 (5)는 두 사람의 기쁨의 정도성을 비교하여 '기뻐하다'와 같은 심리동사가 비교술어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

이상에서 각각 높이의 정도, 미모의 정도, 뛰는 속도의 정도, 요금을 인상하는 정도, 기쁨의 정도를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결론을 말하면 두 사물이 성질, 상태, 수량, 동작 등을 비교하고 있지만, 실은 해당 사항의 정도성을 비교하는 것이다.[35] 차등비교구문의 비교내용을 살펴보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정도성뿐만 아니라, 시간성, 공간성 및 방향성을 비교하는 경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품사 중에 주로 형용사 및 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자리에 많이 온다고 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형용사 및 동사가 서술어

34) Cresswell(1976)에서 정도는 '척도의의 점'이라고 하였고, Kennedy(1999)에서 척도는 '어떠한 속성의 양이 최소치부터 최대치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 무한히 긴 추상적인 선을 뜻한다'고 하였다. 오경숙(2003)에서 정도는 '척도를 이루는 성분인 어떤 속성의 양'이라고 하였다.

35) 지금까지 정도성이라는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어 있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질',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어휘들이 지니는 속성', '어떤 어휘의 상대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드러내는 의미자질'. 손춘섭(2008)에서는 정도성은 어떤 어휘 항목에 내재하는 의미 자질로서 어휘 체계의 대립을 발생시키는 시차적 자질이라고 하였고, 또 정도성은 크게는 전체 어휘 체계를 정도어 체계와 비정도어 체계로 양분하는 시차적인 기도 한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장에서는 형용사를 비롯하여 품사 중에 차등 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서 비교술어의 품사 범주를 밝힐 것이다.

3.1. 형용사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비교결과의 역할도 한다. 다시 말하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어떤 성질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비교술어의 정도성을 통해 나타낸다. 그렇게 때문에 비교결과를 표현하는 비교술어는 정도 차이라는 고유한 특징이 있어야 한다. 형용사가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기 때문에 대부분 형용사는 정도 차이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다.[36)]

(6) 철수가 간다.
(7) 영희가 학생이다.
(8) 철수가 크다.
(9) 영희가 예쁘다.

예문 (6)과 (7)의 서술어는 각각 동사, 지정사이고, (8)과 (9)의 서술어는 형용사이다. (6)과 (7)의 진술 내용이 누구에게도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시 말하면, 동사 '오다'와 명사 '학생'은 그 자체가 정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내용은 누구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8)과 (9)의 경우는 다르다. (8)에서 발화자는 철수가 크다고 표현하였지만 그 크기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화자가 초등학생일 경우 '철수가 크다'고 말하면 철수는 실제상 일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키가 큰 사람이 아닐 수 도 있다. 그러나 발화자가 대학생일 경우 '철수가 크다'고 말하면 철수가 진짜 키가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 '철수의 키'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즉 이와 같은 상황에 똑같은 진술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발화자나 듣는 사람

36) 정인수(1994)에서는 형용사를 〔정도성〕 자질을 가진 것과 〔정도성〕 자질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누었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에 따라서 그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다. 예문 (9)도 마찬가지이다. 영희가 예쁘다고 진술하였지만 사람마다 그 예쁨의 정도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대부분 형용사는 동사와 명사와 달리 자연스럽게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는 주로 형용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형용사로 된 비교술어를 보면, 모든 형용사가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양배철(1983)에서는 모든 형용사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본고는 그의 입장과 다르다. 형용사의 여러 특성 및 분류를 살펴보면, 그 중에 오직 사람 및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성상형용사(性狀形容詞)만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37)]

3.1.1. 비교술어로 가능한 경우

정인수(1994)에서는 형용사를 정도성 자질을 가진 것과 정도성 자질을 가지지

---

37) 최현배(1937)에서 형용사를 속겉 그림씨(性狀形容詞), 있음 그림씨(存在形容詞), 견줌 그림씨(比較形容詞), 셈숱 그림씨(數量形容詞), 가리킴 그림씨(指示形容詞)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성상형용사는 다시 감각형용사, 심리형용사, 평가형용사, 이지 형용사 등으로 분류하였다.

감각형용사: 검다, 푸르다, 달다, 쓰다, 시끄럽다, 고요하다, 미끄럽다, 무겁다, 어지럽다, 답답하다, 빠르다…
심리형용사: 기쁘다, 슬프다, 다정하다,
평가형용사: 착하다, 아름답다, 예쁘다, 좋다, 나쁘다…
이지형용사: 둔하다, 총명하다, 똑똑하다…

남기심·고영근(1993)<표준국어문법론>에서 형용사는 주체의 성격에 따라 몇 갈래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P118: 6.(가) 검다, 달다, 시끄럽다, 거칠다, 치다. 빠르다, 멀다, 높다…
(나) 착하다, 모질다, 아름답다, 성실하다…
(다) 같다, 다르다, 낫다…
(마) 고프다, 아프다, 싫다, 좋다…

이상에서 6(가)는 감각적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고, (나)는 화자의 대상에 대한 평가를, (다)는 비교를, (마)는 심리적, 물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변할 수 있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라고 하였다. 같은 형용사에 따라 세부 분류를 할 수 도 있지만 그 경계를 세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서 6의 예들과 같이 대상의 속성이나 생태를 표시하는 형용사를 성상형용사라고 부른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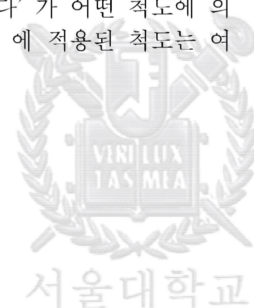
않는 것으로 나누었다. 정도성을 가지는 형용사는 주로 대상의 속성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성상형용사이다[38]. 성상형용사는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차등비교구문에서 형용사의 주된 기능은 성질과 상태의 다른 점, 또는 정도의 높고 낮음을 표시하는 것이다.

(10) 철수의 책은 영희의 책보다 두껍다.

예문(10)은 두 책의 두께를 비교한 것이다. 혹은 두 책의 두꺼운 정도를 비교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두껍다'는 정도성을 가지고 있는 성상형용사이다. 여기서 '철수의 책'의 두꺼운 정도는 단지 비교대상인 '영희의 책'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비교주체인 '철수의 책'의 두께는 비교대상에 따라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다. 오경숙(2003)에서는 정도성 표현은 이들이 나타내는 의미의 속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에 따라 정의역에 속한 대상들에게 순서를 부여하고, 또 정도성 표현은 모호성을 갖는다고 하였다.[39] (10)에서 '철수의 책'은 '영희의 책'보다 두껍다고 표현되지만, 청자가 '철수의 책'과 '영희의 책'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이 두 책의 두께를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전자가 후자보다 더 두껍다는 상대적 차이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정도성 술어가 지닌 일반적인 특징이다. 비교구문이 아니더라도 '철수의 키

38) 유현경(1998)에서는 성상형용사는 어떠한 사물의 속성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라고 기술하였다. 여기서 속성이란 사물의 본질을 이루는 고유한 특성이나 성질을 말하고, 상태는 사물이나 현상이 처해 있는 현재의 모양이나 형편을 말한다. 예: 가늘다, 가볍다, 굳다, 길다, 깊다, 날쌔다, 높다, 단단하다, 더럽다, 두껍다, 따뜻하다, 뚱뚱하다, 말끔하다, 매끈하다, 무겁다, 뾰족하다, 시큼하다, 얇다, 예쁘다, 짧다, 충성스럽다, 크다, 푸르다, 흐리다. 희다…

39) Kennedy(1999)에서 정도성 표현은 순서매기기라는 특성에 의하여 척도를 형성하게 되는 데 이 척도 위에는 관련된 의미 속성의 정도가 최소치부터 최대치까지 순서를 지어 나열된다고 하였다. 김정대(1993)에서는 성상형용사가 정도성을 지녔다 함은, 그 척도(scale)가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데에서 정당화된다고 기술하였다. '빠르다'를 예로 척도의 문제를 논의해 보자. 열 명의 사람이 달리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섯 사람이 '빠르다' 는 평가를 받았고 이 여섯 사람 중에서 제일 빠르게 달린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빠르게 달린 사람도 있고, 여섯 번째 빠르게 달린 사람도 있다. 포괄적으로는 '빠르다'로 평가되는 부분에 함께 들면서도 이렇게 일등에서 육등까지 등수가 매겨질 수 있다는 것은 '빠르다' 가 어떤 척도에 의해 등급화 될 수 있는 말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 준다. 이 경우 '빠르다' 에 적용된 척도는 여섯이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가 크다'라는 문장을 들은 청자는, 철수를 직접 본 것이 아니라면 철수의 키를 확실히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도성 술어가 쓰인 문장은 모호성을 지닌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11)을 보면,

(11) 철수의 책은 국어 대사전보다 두껍다.

(11)에서 '두껍다' 의 정도성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철수의 책'의 두께의 정도가 몇 센티미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국어 대사전이 두꺼운 책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다른 책을 몰라도 국어 대사전보다 두꺼우면 진짜 두꺼운 책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경우는 '철수의 책'의 두꺼운 정도를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철수의 책은 타임지보다 두껍다'같은 경우이면, '철수의 책'의 두께가 단지 '타임지'보다 두껍고, 실제로 두꺼운 책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12) 형은 동생보다 크다.
(13) 이 옷은 저 옷보다 비싸다.
(14) 1호 아파트는 2호 아파트보다 높다.

마찬가지로 예문 (12), (13), (14)에서 나온 성상형용사 '크다', '비싸다', '높다'는 각각 '크기', '값', '높이'에 대한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해당 비교내용의 정도성을 예문 (10)처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12), (13), (14)의 비교대상인 '동생', '저 옷', '2호 아파트'을 각각 '야오밍', '밍크 코트', '63빌딩'으로 바꾸면 해당 성상형용사의 정도성을 두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

3.1.1.1. 형용사 앞에 정도부사가 오는 경우

'더, 덜, 훨씬, 약간, 조금'등 성상형용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최현배(1937)에서는 정도부사를 '모양의 성질을 가진 속성의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앞에서 차등비교구문 중에 나타나는 정도부사는 비교소라고 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명하였다.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비교결과를 더 정확하게 알아볼 때, 혹은 비교결과를 강조할 때 정도부사를 많이 사용한다.

(15)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더 높다.
(16)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훨씬 높다.
(17)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훨씬 더 높다.

예문 (15), (16), (17)은 설악산과 관악산의 높이에 대해 비교하는 차등비교구문이다. (15), (16), (17)에 나타나는 정도부사를 보면, '높이'의 정도성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15)에서는 정도부사 '더'가 '높다' 앞에 나타나서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높이의 차이는 작거나 크거나, 또 수치화로 몇 미터인지 알 수 없지만 일단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예문(16)에서는 정도부사 '훨씬'을 사용하여 그 정도성을 '더'보다 한층 더 강조한다. 여기서 '훨씬'은 두 산의 높이 차이가 조금만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난다는 뜻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설악산의 높이는 관악산보다 높긴 하지만 조금 높은 것이 아니라, 많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문 (17)에서는 정도부사가 두 개를 겹쳐서 나타난다. 정도부사 '훨씬'과 '더'가 겹쳐서 사용되어 높이의 정도가 (16)보다 더 강하다. 이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예문 (15), (16), (17)의 높이에 대한 정도는 (17) > (16) > (15)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다른 정도부사도 형용사가 비교술어로 된 차등비교구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18) 재정적자 문제는 예상보다 덜 심각했다.
(19) 1990년의 세계 인구를 플로리다의 잭슨빌 지역보다 약간 넓은 곳에 수용했다.

3.1.1.2. 형용사 앞에 비교차가 오는 경우

예문 (15), (16), (17)을 보면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정도부사를 통하여 두 산의 높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가 없기 때문에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얼마나 높은 지 파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교차가 필요하다. 비교차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두 사물의 어떤 성질을 비교할 때 나타나는 차이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다.[40] 비교차도 비교술어가 형용사로 된 차등비교구문에서 자주 나타난다.

(20)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1000미터 더 높다.

예문 (15), (16), (17)에서는 두 산의 높이 차이에 대해 구체적 수치가 없지만 예문 (20)에서 비교술어 '높다'앞에 1000미터가 나타나 두 산의 높이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었다. 비교차는 차등비교구문의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위 예문처럼 차등비교구문에 비교차가 나타나면 두 사물의 어떤 성질을 비교할 때 그 차이를 구체적 수치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1) 누나는 동생보다 한 살 많다.
(22) 철수가 영희보다 10 센티미터 더 크다.
(23) 낙동강은 한강보다 20 미터 더 길다.

예문 (22)와 (23)을 보면,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차를 단독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비교소, 즉 정도부사와 함께 나타낼 수도 있다.

3.1.2. 비교술어로 불가능한 경우

형용사 중에 '크다'와 같은 성상형용사가 사물을 수식하면 그 크기의 정도를 측량할 수 있지만 '유일하다'등 형용사는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유일하다'의 양을 측정할 수도 없고, 최소치부터 최대치까지 나열할 수도 없다.[41] 이처

40) 김정대(1993)에서는 비교차는 그 성격상 차등비교구문에만 쓰일 수 있고 동등비교구문에는 쓰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기술하였다.
41) 정인수(1994)에서 '완벽하다, 영원하다, 가득하다'와 같은 비정도적 형용사들이 정도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근거는 '조금, 약간, 아주, 매우' 등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어색하다고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럼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형용사는 비교술어가 될 수 없다.

(24) *선생님보다 학생은 더 관계없다.
(25) *이 도자기가 저 그릇보다 유일하다.

예문 (24)와 (25)는 모두 비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관계없다, 유일하다'등 형용사는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다.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형용사는 아래와 같다:

가만하다, 걸맞다, 골똘하다, 그지없다, 꼼짝없다, 난데없다, 다름없다, 다시없다, 득달같다, 마땅하다, 마련이다, 마지못하다, 막다르다, 무방하다, 배다르다, 보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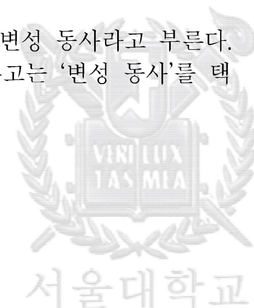
이상의 논의를 보면 형용사 중에서 오직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표시하는 성상형용사만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3.2. 동사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도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러나 동사도 형용사처럼 모든 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그 제한 조건은 형용사보다 더 복잡하다. 앞에서 차등비교구문에서 나타나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주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성 차이에 대한 비교한다고 기술하였다. 대부분 형용사가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사물이 어떤 성질을 비교할 때 형용사를 통하여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동사는 정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비교를 통해 나타나는 차이를 동사를 통하여 알아볼 수 없다. 동사를 살펴보면, 그 중에 변성동사와 심리동사 두 가지만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42]

하였다.

42) 양배철(1983)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있는 동사를 변성 동사라고 부른다. 변성 동사란 사물의 성질이 변화함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기술하였다. 본고는 '변성 동사'를 택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2.1. 변성동사

변성동사는 사물의 어떤 성질이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동사이다. 여기서 주로 정도성 변화와 시간성 변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정도성 변화는 다시 수량 변화, 공간 변화로 세분한다. 수량 변화는 수량의 증가, 감소를 가리키고, 공간 변화는 어떤 대상의 규모나 면적의 확대, 축소를 말하는 것이다. 시간성 변화는 시간상으로 연장하거나 앞당기거나 하는 것이 해당된다.

3.2.1.1. 정도성 변화

정도성 변화는 수량 변화와 공간 변화로 나눌 수 있다. 수량 변화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차이는 수량으로 나타난다.

(26) JD 파워가 37개 자동차 브랜드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객 서비스 만족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4단계를 상승하였다.
(27) 산업 등 8 개 업종이 87년 여름의 분규 후에 생산량을 평소보다 대폭 증가하였다.
(28)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9.2 원이 내렸다.
(29) 휴맥스 상반기 주가는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다.

예문 (26), (27), (28), (29)는 수량에 대한 변화이다. (26)과 (28)은 비교차를 통하여 정도성 차이를 나타나고, (27)과 (29)는 정도부사로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정도성 차이를 드러낸다. 비교술어가 변성동사로 된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차를 자주 나타낸다. 비교차는 필수 성분이 아니지만 정도성은 수치로 나타나면 그 변화 차이를 정확하고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예문 (26)에서는 JD 파워의 고객 서비스 만족도는 지난해보다 상승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상승한 폭도, 다시 말하면 지난해보다 어느 정도 상승했는지를 비교차인 '4단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 (28)에서도 비교차인 '9.2 원'

해서 사용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이라는 수치로 현재 원·달러 환율이 전날보다 얼마나 내렸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반대로, 예문 (27)과 (29)는 비교차를 대신 정도부사를 통하여 그 변화의 정도성을 나타낸다. (27)에서는 87년 여름의 분규 후에 8 개 업종의 생산량은 평소보다 증가하였다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증가한 양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정도부사 '대폭'을 통하여 그 증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9)에서는 정도부사 '조금'으로 주가가 떨어진 폭도가 작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공간 변화는 주로 면적, 부피, 그리고 규모 등 차원에서 일어나는 변화이다.

(30) 공사한 후, 학교 농구장을 전보다 2배로 넓혔다.
(31) 거실과 부엌 사이에 있는 벽이 철거되면 공간을 지금보다 많이 늘리겠다.
(32)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 규모를 작년보다 조금 줄였다.

예문 (30), (31), (32)는 공간 차원에서 나타나는 변화이다. 그러나 똑같은 공간 변화가 일어나지만 변화의 유형은 다르다. (30)에서 농구장이 공사전보다 2배로 넓히는 것은 농구장 크기를 말하는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넓다'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첫 번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두 번째는 너비가 길다. 세 번째는 마음 쓰는 것이 크고 너그럽다. 농구장을 넓힌다고 말하면 면적이 크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1)에서 현재 거실과 부엌이 벽으로 갈라지어 있지만, 벽을 철거하면 공간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간은 부피로 이해할 수 있다. (32)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회사 규모가 작년보다 줄었다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규모를 어떻게 줄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수를 감소하든 회사 면적을 축소하든 회사 차원에서 규모는 작년보다 준 것이다.

3.2.1.2. 시간성 변화

변성동사가 비교술어 자리에 나타난 차등비교구문에는 정도성 변화뿐만 아니라, 시간성 변화도 있다. 시간성 변화는 사건이 규정한 시간보다 일찍 일어나거나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늦게 발생한 상황이다.

(33) 월드컵을 계기로 창립 총회를 계획보다 앞당겼다.
(34) 마지막 접수시간은 예정날짜보다 5일 더 연장하였다.
(35) 회의 시간을 예상한 것보다 많이 늘였다.
(36) 나이가 많은 탓에 작업 속도도 예정보다 20일을 늦어졌다.

예문 (33), (34), (35), (36)은 시간 변화를 나타나는 차등비교구문이다. (33)에서는 비교차와 다른 정도부사 없이 회의가 열리는 날짜는 당초에 계획보다 앞당겼다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34)에서도 역시 비교차 '5일'을 통하여 마지막 접수시간을 예정날짜보다 연장하였다는 변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만찬가지로 (35)와 (36)에서는 각각 방식부사와 비교차를 통하여 해당 시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간성 변화가 일어나는 문장은 시간 및 기간을 연장하거나 앞당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성동사는 꼭 해당 변화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정도성 변화에서 나타나는 동사는 꼭 정도성 변화에만 쓰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변성동사 '늘이다'는 수량 변화, 공간 변화, 시간 변화에 다 쓰일 수 있다.

그 외에 자주 쓰이는 변성동사는 아래와 같다.

늘다, 늘리다, 줄다, 줄이다, 삭감하다, 초과하다, 앞지르다, 초월하다, 능가하다, 내리다, 낮추다, 인하하다, 절하하다, 떨어지다, 늘어나다, 제고하다, 높아지다, 높이다, 미루다, 연기하다, 지연하다, 단축하다, 감축하다, 올라가다, 상승하다, 넓히다, 변하다, 바꾸다, 달라지다, 개선하다, 강화하다, 증강하다, 절약하다, 줄어들다, 하락하다…

3.2.2. 심리동사

심리동사는 주어의 심리적인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심리동사는 사람의 심리 행위와 상태를 서술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 특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성도 표현한다. 그래서 심리동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부 심리동사는 심리형용사에서 파생하여 형성된다.43) 심리동사는 성상형용사처럼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술어로 차등비교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37) 동생의 합격 소식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기뻐하신다.
(38) 강아지가 죽은 것에 동생은 형보다 슬퍼한다.
(39) 철수는 사자를 호랑이보다 무서워한다.

예문 (37), (38), (39)중에 나온 심리동사 '기뻐하다', '슬퍼하다', '무서워하다'는 각각 심리형용사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에서 파생되었다. '기쁘다', '슬프다', '무섭다'와 같은 심리형용사가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파생된 심리동사도 정도성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한다. 특히 심리동사 앞에서 '더', '훨씬'과 같은 정도부사가 오면 그 정도성이 더 뚜렷하게 보일 수 있다.

심리형용사에서 파생으로 형성된 심리동사 외에, 고유어 심리동사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을 가질 때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를 사용하여 그 감정을 표현한다.

(40)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딸을 사랑한다.
(41) 나는 수학보다 물리를 더 싫어한다.

위의 (40)과 (41)은 고유어 심리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위치에 와서 사람이 어떤 일이나 사물 따위에 대하여 나타내는 감정을 정도성으로 표현한다.

43) 유현경(1998)에서는 심리형용사는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서술하는 형용사인데, 이 때의 경험주는 문장의 주어의 형태로 표현된다. 심리형용사 구문은 특정한 대상에 관한 심리 상태를 드러내기도 하고 (대상 심리형용사), 어떠한 원인이 경험주의 심리 상태를 유발하게 되기도 한다 (원인 심리형용사)고 기술하였다.
대상 심리형용사: 궁금하다, 귀엽다. 그립다, 달갑다, 대견스럽다, 두렵다, 만족스럽다, 무섭다, 미덥다, 믿음직스럽다, 밉다, 부럽다, 불쌍하다, 사랑스럽다, 수상쩍다, 싫다, 아깝다, 예쁘다, 원망스럽다, 좋다, 측은하다…
원인 심리형용사: 섭섭하다, 놀랍다, 고통스럽다, 노엽다, 흡족하다, 기쁘다, 슬프다, 곤혹스럽다, 괴롭다, 외롭다, 쓸쓸하다, 서운하다, 고깝다, 아찔하다, 부끄럽다, 서럽다, 흐뭇하다, 원통하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그러나 여기에 문제 하나를 드러냈다. 즉 ‘좋아하다’, ‘사랑하다’, ‘싫어하다’가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술어로 나타날 때, 해당 구문은 중의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40)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이 모두 딸을 사랑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가 어머니가 딸을 사랑하는 정도보다 더 강하다. 두 번째는 어머니와 딸은 사랑하는 대상으로 되고, 아버지는 두 사람 중에 딸을 선택하여 사랑한다는 뜻이다. 예문 (41)도 마찬가지다. ‘나’는 두 과목 중에 물리를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과목을 모두 싫어하는 전제에서 물리를 더 싫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44)]

그 외에 정도성을 가지는 심리동사는 ‘존경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애통하다’ 등이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동사 중에서 오직 정도성을 가지고 있는 변성동사와 심리동사만이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3.3. 명사

앞에서 일부 형용사와 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형용사와 동사뿐만 아니라, 지정사 ‘이다’도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45)] ‘이다’가 서술어 자리에 올 때는 그 앞에 체언인 명사가 따라와야 한다. 그러나 모든 명사가 ‘이다’앞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46)]

‘이다’가 형태적으로는 활용을 한다는 용언의 특성을 지니면서도 통사적으로는 항상 선행하는 체언에 붙어 비자립적으로 쓰인다.[47)] ‘이다’는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올 때, 그 앞에 선행하는 체언이 주로 명사로 나타난다. 이럴 때, ‘이다’ 앞에 나온 명사를 비교구문에서의 의미적인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44) 김정대(1992)에서는 비교구문의 중의성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았으니 본고는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45) 그 동안 여러 연구자에 따라 ‘이다’에 대한 품사 분류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 있다. 학교 문법에서는 ‘서술격조사’로 분류되고 현재에도 ‘지정사, 형용사, 계사, 접사’등 다양한 범주로 기술되고 있다. 본고는 남길임 (2004)에 따라 ‘지정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46) ‘이다’는 형용사로 분류하는 논의도 있지만 ‘이다’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 올 때 그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따로 분류하여 살펴볼 것이다.

47) 남기심 외(2006) <왜 다시 품사론인가> P270.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그러나 명사도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명사가 '이다'앞에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사가 지정사 '이다'앞에 올 수 있는 제한 조건은 앞에서 논의한 형용사, 동사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3.3.에서는 '이다'앞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를 정도성, 방향성 및 시간성 세 가지로 나눠서 자세히 살펴본다.

3.3.1. 정도성 명사

명사는 일반적으로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로 정의된다.[48] 정의를 보면, 명사는 그 자체가 정도성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명사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거나 앞에 다른 형용사나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정도성을 가질 수 있다.[49]

(42) ㄱ. 영희는 학생이다.
ㄴ. 영희는 미인이다.

(42ㄱ)에서 '영희'가 학생이라는 정보는 전달되지만 그것이 어떤 학생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학생'자체가 정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영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운동을 잘 하는 학생 인지 등 정보는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42ㄴ)에서도 영희가 미인이라는 정보를 전달되지만 우리는 그 미모의 정도를 알 수가 없다. 이때는 정도부사 '아주'의 수식을 받으면 그 정도성을 확인할 수 있다.

(43) ㄱ. *영희는 아주 학생이다.
ㄴ. 영희는 아주 미인이다.

보다시피 정도부사 '아주'는 '학생'을 수식할 수 없지만 '미인'을 수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은 정도를 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그저 영희

48) 고영근,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49) 김남탁(1994) <국어 정도표시 명사에 대하여>에서는 명사 중에는 정도성을 의미특성으로 하여 정도를 표시하는 명사들이 존재한다고 기술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가 학생이라는 동일한 정보가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명사 '미인'은 그 미모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도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명사는 차등비교구문에서 이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 지금부터 어떤 정도성 명사가 서술어 '이다' 앞에 올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3.3.1.1. 형용사성 명사[50]

대부분 명사는 형용사처럼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일부 명사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명사를 형용사성 명사로 부르기도 한다. 형용사성 명사는 대부분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인', '부자', '멋쟁이', '구두쇠', '애국자' 등이 있다. '미인'은 얼굴이 예쁘게 생긴 사람,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 '멋쟁이'는 멋있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 '구두쇠'는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 데에 몹시 인색한 사람, '애국자'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처럼 대부분 형용사성 명사는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형용사성 명사는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44) *영희가 철수보다 학생이다.
(45) *김군이 이군보다 의사이다.
(46) *부장은 과장보다 애인이다.

위의 (44), (45), (46)에서 '학생', '의사', '애인'과 같은 명사는 정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정도를 측정할 수 없다. 정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물의 이름을 표시하는 '학생', '의사', '애인'을 가지고 두 사람을 비교할 수 없다.

(47) 영희는 철수보다 부자이다.
(48) 김 군은 이 군보다 멋쟁이이다.
(49) 부장은 과장보다 구두쇠이다.

50) 본고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는 명사가 형용사성 명사라고 부른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위의 (47), (48), (49)에서 '부자', '멋쟁이', '구두쇠'와 같은 명사는 그 자체가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부자'는 가지고 있는 돈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멋쟁이'는 멋을 내는 정도, '구두쇠'는 그 사람이 인색한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측정을 통하여 나타내는 차이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47)에서는 영희와 철수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양에 대해 비교하고, (48)에서는 김 군과 이 군 두 사람이 멋을 내는 정도에 대해 비교하고, (49)에서는 부장과 과장 두 사람이 인색한 정도에 대해 비교한다.

3.3.1.2. 비유로 쓰인 명사

비유로 쓰인 명사는 인간의 속성의 일면을 기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성 명사처럼 어떤 형용사의 특성이 함축되어 있다. 예를 들면 '형광등', '돌대가리'등이 있다. 그러나 차등비교구문에서 나타나는 비유로 쓰인 명사가 형용사성 명사와 다르다. 형용사성 명사는 그 단어의 뜻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비유로 쓰인 명사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면 '형광등'은 진공 유리관 속에 수은과 아르곤을 넣고 안쪽 벽에 형광 물질을 바른 방전등이라고 하는데, 비유의 뜻으로 나타날 때는 둔하고 반응이 느린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런 명사는 비유로 쓰일 때 정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50) 철수가 영희보다 돌대가리이다.
(51) 동생은 형보다 더 형광등이다.

'돌대가리'에서 '돌'은 '석두'라는 뜻이고, '대가리'는 주로 길쭉하게 생긴 물건의 앞이나 윗부분이라는 뜻이다. 둘을 합치면 석두의 윗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서 찾아보면, '돌대가리'는 본의를 쓰지 않고 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의 머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로 쓰일 때가 많다. 예문 (50)에서 두 사람이 똑똑한지, 우둔하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돌대가리'를 보면 철수가 영희보다 어리석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문 (51)에서는 정도 부사 '더'를 개입하여 '형광등'으로 두 사람의 머리의 융통성을 비교하고 있다.

3.3.1.3. '-적' 명사

김규철(1980)에서는 접미사 '-적'은 정도화 접미사로서 선행하는 명사에 '정도'의 의미를 부여하는 접사라고 설명하였다.

(52) 동생은 누나보다 이기적이다.
(53) 이 방법은 저번에 실험할 때 사용한 방법보다 더 과학적이다.

'이기', '과학'은 정도성을 가지지 않는 명사이지만 뒤에 접미사 '-적'을 붙이면 해당 명사가 정도성을 가지게 된다. (52)에서는 두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이익만을 꾀하는 정도를 비교하는 것이고, (53)에서는 두 방법은 과학의 바탕에서 본 정확성이나 타당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3.3.2. 방향성 명사

'이다'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올 때, 그 앞에 선행하는 명사에는 방향성 명사도 올 수 있다. 방향성 명사는 위치와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고, 뒤에 주로 접미사 '쪽'을 붙여 쓴다.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로 방향이나 위치를 비교할 때, 방향 명사의 정도성을 가지게 된다. 방향성 명사는 '앞', '뒤', '동', '서', '아래', '위'등이 있다.

(54) 철수가 서 있는 위치가 영희보다 오른쪽이다.
(55) 누나 집이 우리 집보다 동쪽이다.

예문 (54)에서는 철수와 영희가 두 사람이 서 있는 위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즉 철수가 서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영희가 서 있는 위치가 그 기준보다 오른쪽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있다는 것이다. (55)에서는 집 방향을 비교하는 것이다. 즉 '우리 집'을 기준으로, 누나 집이 동쪽에 있다.

3.3.3. 시간성 명사

시간성 명사는 시간 순서를 표시하는 명사이다.

(56) 순번으로 따지면, 철수가 영희보다 우선이다.

국어사전에서 보면, '우선'의 품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은 부사로 간주할 때는 '어떤 일에 앞서서'로 해석되고, 명사로 볼 때는 '딴 것에 앞서 특별하게 대우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예문 (56)에서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의 선후 순서를 비교하고 있다. 시간의 선후 순서를 표시하는 명사는 '우선'외에 '먼저'도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지정사 '이다'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로 될 때, 그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는 오직 정도성을 가지는 명사, 방향성 명사 및 시간성 명사만 가능하다. 그 중에 정도성을 가지는 명사는 주로 형용사성 명사와 비유로 쓰이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

3.4. 부사[51)]

앞에서 변성동사와 심리동사가 일부 형용사처럼 정도성을 가진다고 살펴보았다. 그 외에 대부분 동사는 양의 변화나 정도 차이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될 수 없다.

(57) *그는 나보다 왔다.

---

51) 비교구문에서 부사와 관형사가 통사적인 서술어가 될 수 없지만, 의미적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58) *형은 동생보다 밥을 먹었다.
(59) *철수가 영희보다 뛴다.

동사 '오다', '먹다', '뛰다'가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로 동작만 가지고 비교할 수 없다. 즉 동작 동사만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로 될 때 (57), (58), (59)는 모두 비문이 되었다. 그러나 '오다', '먹다', '뛰다'같은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동사가 그 앞에 부사가 오면 (57), (58), (59)는 모두 정확한 문장으로 성립될 수 있다.

(60) 그는 나보다 먼저 왔다.
(61) 형은 동생보다 밥을 많이 먹었다.
(62) 철수는 영희보다 더 빨리 뛴다.

(60), (61), (62)를 보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로 동작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동작이 나타내는 행위의 방식, 방법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동작의 행위를 비교할 때 부사가 필요하다. 부사는 차등비교구문에서의 서술어가 될 수 없지만, 의미적인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3.4.1. 방식부사

차등비교구문에서 동사 앞에 방식부사가 제일 많이 나타난다.[52] 방식부사는 동사 앞에 놓여 동작의 양태 표현을 수식할 수 있다. 방식부사를 통하여 동작이 나타나는 행위의 방식, 방법 등을 비교할 수 있다. 방식부사의 대부분은 형용사에서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처럼 정도성을 가지고 있다.

(63) 형은 동생보다 밥을 빨리 먹었다.
(64) 철수가 영희보다 숙제를 정확히 하였다.

52) 방식부사(manner adverb): 동작 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그 동작의 속성이나 상태, 혹은 동작을 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부사가 이 범주에 해당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65) 아버지가 나보다 멀리 간다.

예문 (63), (64), (65)에 쓰인 부사 ‘빨리’, ‘정확히’, ‘멀리’는 각각 형용사 ‘빠르다’, ‘정확하다’, ‘멀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먹다’, ‘하다’, ‘가다’는 사람 및 사물의 움직임을 표시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정도성을 가지지 못한다. (63)에서 형과 동생이 서로 밥을 먹는 동작의 행위를 비교할 수 없지만, 그 동작의 행위를 하는 방식, 방법 및 속도 등을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두 사람이 밥을 먹는 양, 먹는 속도 및 먹는 방식 등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형과 동생은 누가 더 많이 먹는지, 누가 더 빨리 먹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 이처럼 동작의 행위를 하는 방식을 비교를 할 때 방식부사가 필요하다.[53] 마찬가지로 (64)에서는 철수와 영희가 숙제를 하는 정확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고, (65)에서는 아버지와 ‘나’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리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3.4.2. 정도부사

정도부사는 용언 또는 용언형이나 다른 부사의 정도를 한정하는 부사이다. 국어의 정도부사는 주로 상태동사 앞에 놓여 상태동사의 정도를 보여준다. 정도부사는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 비교술어 앞에 자주 나타난다.

(66) 철수가 영희보다 영어를 잘 한다.
(67) 형은 동생보다 밥을 더 많이 먹었다.

(66)에서는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의 영어 실력을 비교하고 있다. 정도부사 ‘잘’을 통하여 철수의 영어 실력은 영희보다 높다는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67)에서는 정도부사 ‘더’를 통하여 ‘형은 동생보다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3) 고영근,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며 주지만 문장 안에서 다른 부사를 꾸며 주기도 하고 제한적인 조건에서 명사나 관형사를 꾸며 주기도 하며 문장 전체를 꾸며 주기도 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4.3. 시간부사

방식부사, 정도부사뿐만 아니라, 시간의 선후를 표현하는 부사도 차등비교구문에 자주 나타난다.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의 순서를 비교할 때 시간부사를 많이 사용한다.

(68) 연희가 동생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69)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주무신다.

예문(68)과 (69)에서는 동작의 행위가 일어나는 시간의 순서를 비교하는 것이다. (68)에서는 연희와 동생이 집에 돌아오는 동작의 행위를 비교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 집에 돌아오는 선후의 순서를 비교할 수 있다. 부사 '일찍'을 통하여 누가 먼저 집에 돌아오는지 판단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예문 (69)에서도 시간부사 '먼저'를 통하여 어머니와 아버지가 두 사람이 잠을 자는 선후 순서를 비교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나타날 때, 그 앞에 반드시 부사가 와야 한다. 부사를 차등비교구문의 의미적인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동사 앞에 올 수 있는 부사는 방식부사를 비롯하여, 정도부사와 시간부사가 있다.

3.5. 관형사

앞에서 부사가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동사 앞에 오면 그 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살펴보았다. 관형사는 부사와 달리 동사 앞에 나타나지 않고 명사 앞에 오면 정도성을 가지지 못한 동사도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70) *동생은 형 것보다 옷을 입었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71) *아버지가 어머니 것보다 차를 몰고 다닌다.

앞에서 말했듯이 두 사람이 서로 옷을 입는 동작과 차를 운전하는 사건에 대해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입다', '몰다'는 그 동작의 행위가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70)과 (71)에서는 옷이나 차의 새 것과 헌 것이 비교내용이 될 수 있다.

(72) 동생은 형 것보다 헌 옷을 입었다.
(73) 아버지가 어머니 차보다 더 새 차를 몰고 다닌다.

위의 (72)와 (73)에서는 관형사 '헌', '새'를 넣으면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72)에서는 옷의 새 것과 헌 것에 대한 비교하고, (73)에서는 차의 새 것과 헌 것에 대해 비교한다. 관형사는 체언 앞에서 그 체언의 뜻을 분명하게 제한하는 품사이다. 예문에서 보면 관형사가 명사를 수식해서 해당 명사가 정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다. 그러나 차등비교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관형사의 수량은 다른 품사보다 상당히 적은 편이다. 앞에 나와 있는 '새, 헌' 외에 '옛, 오랜, 맨…' 등이 있다.

이상 논의를 보면, 관형사도 명사 앞에 오면 그 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 관형사는 그 의미 기능에 따라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로 구분하지만 그 중에서 주로 성상관형사가 해당 명사를 수식한다. 성상관형사를 차등비교구문에서의 의미적인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3.6. 요약

3장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통사적으로 보면, 형용사를 비롯하여, 일부 동사, 명사까지 비교술어가 될 수 있고, 반면에 의미적으로 보면, 부사와 관형사도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다만, 부사와 관형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술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3.1.에서 형용사 비교술어를 살펴보았다. 형용사를 정도성 자질을 가진 것과 정도성 자질을 가지지 않은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것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에 정도성을 가지는 성상형용사는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그 외에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는 기타 형용사는 비교술어가 될 수 없다. 3.2.에서 동사 비교술어를 살펴보았다. 동사 중에 변성동사와 심리동사가 정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술어 자리에 자주 나타난다. 변성동사는 사물의 어떤 성질이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동사이고, 심리 동사는 주어의 심리적인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다. 비교술어가 변성동사로 나타날 때, 사물의 성질이 변화를 정도성 변화와 시간성 변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정도성 변화는 다시 수량 변화와 공간 변화로 분류될 수 있다. 비교술어가 심리 동사로 나타날 때, 그 심리 동사를 형용사에서 파생으로 형성된 심리 동사와 고유어 심리 동사로 나눌 수 있다. 3.3.에서 명사 비교술어를 살펴보았다. 명사가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지만 일부 명사는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거나 앞에 다른 형용사와 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정도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 명사 비교술어를 정도성 명사, 방향성 명사와 시간성 명사로 나눠서 기술하였다. 3.4.와 3.5.에서 부사 비교술어와 관형사 비교술어를 논의하였다. 부사와 관형사는 차등비교구문에서 통사적 비교술어가 아니라, 의미적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 차등비교구문에서의 요소 생략

2장에서 차등비교구문이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표지, 비교차, 비교소, 비교술어, 그리고 비교내용 등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차등비교는 두 개 및 그 이상의 사물, 혹은 한 사물이 다른 환경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 성질, 모양 등의 차이점을 고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표지, 비교술어, 비교내용 등 구성 요소가 있어야 통사적인 비교구문이 성립할 수 있다.

(1)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1000미터 더 높다.

예문 (1)은 비교주체 '설악산', 비교대상 '관악산', 비교표지 '보다', 비교소 '더', 비교차 '1000미터', 비교술어 '높다'모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비교내용 '높이'는 생략되어 있다. 비교술어 '높다'를 통하여 설악산과 관악산은의 높이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등비교구문을 살펴보면, 비교구문을 이루는 모든 구성 요소가 다 나타나지 않는다.

(2)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

예문 (2)는 (1)처럼 비교내용 '높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비교소와 비교차도 생략되어 있다. 설악산이 관악산보다 높은 정도를 제시할 필요가 없을 때 비교소와 비교차를 생략할 수 있다. 차등비교구문 중에 생략된 구성 요소를 보면, 비교차와 비교소는 다른 요소보다 더 빈번하게 생략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교소를 생략할 때, 우등비교구문에서의 비교소인 '더'를 생략할 수 있지만 열등비교구문에서의 비교소인 '덜'은 생략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더'의 생략은 언제나 수의적이다.

(3)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더 높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비교소 '더'를 생략하면,

(2)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

예문 (2)에서 '더'를 생략하였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3)과 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2)와 (3)은 둘 다 '설악산은 관악산보다 높다'는 뜻이 전달되고 있다.

(4) 관악산은 설악산보다 덜 높다.

그러나, 비교소 '덜'을 생략하면,

(5) 관악산은 설악산보다 높다.

예문 (4)에서 '덜'을 생략하면 의미상으로 다른 뜻으로 바뀐다. (4)는 '관악산은 설악산보다 낮다'는 뜻으로 표현되지만 (5)의 의미는 (4)와 반대로 변했다.[54]

위에서 비교내용, 비교소와 비교차의 생략 현상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일상에서 차등비교구문이 사용될 때, 상황에 따라 비교주체가 생략될 수도 있고, 비교대상이 생략될 수도 있다, 심지어 비교표지인 '보다'를 생략할 때도 있다. 다시 말하면, 비교술어만 필수적으로 나타나고 다른 구성 요소는 발화 당시의 상황에 따라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생략할 때는 구성 요소 중에 한 요소만 생략될 수도 있고,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함께 생략될 수도 있다.

(6) 설악산은 더 높다.
(7) 관악산보다 더 높다.

---

54) 김봉모(1990)에서는 '더'를 '-보다' 견줌말에 후행하여 어찌이은말을 형성하는 수의적인 요소로 규정하였다. 김정대(1993)에서는 '더/덜'은 '보다'와 호응하는 정도말(수의적인)요소로서 생략될 조건이 아닌데도 핵어가 생략된다는 것은 생략하기 어려우므로 비교구문에서 생략이 자유로운 '더/덜'은 핵어가 될 수 없으며 '더/덜'은 비교구문의 주절인 후행절의 문장 부사어의 자격을 가진다고 기술하였다. 황미향(1995)는 정도부사 '더/덜'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본고는 이를 다시 논의하지 않는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예문 (6)과 (7)은 비교내용 '높이'가 생략된 상태에서 각 비교대상, 비교주체가 생략되어 있다. 통사적으로 볼 때 (6)과 (7)은 모두 비문으로 판단될 수도 있지만 발화자와 청자가 서로 담화 내용을 알고 있는 전제에서 (6)과 (7)과 같은 통사적인 비문은 정확한 문장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발화 상황을 떠나서 비교내용, 비교주체, 비교대상 등 요소를 단순히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8) 김치는 어제보다 맛있다.
(9) 어머니가 할머니보다 통통하다.
(10) 이 옷이 저것보다 비싸다.
(11) 작년보다 성적이 많이 올렸다.

예문 (8)은 비교주체와 비교내용이 같이 생략되고, (9)는 비교내용만 생략돼 있으며, (10)은 비교대상의 일부가 생략된 것 아니지만, 그를 대신 의존명사가 나타나고. (11)은 비교주체가 생략되었다. 위에서 차등비교구문에서의 생략 가능한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지만 이 구성 요소들은 생략될 때 많은 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생략되면 안 된다. 비교구문의 통사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발화 내용도 불구하고 임의로 구성 요소를 생략하면 해당 구문은 비문이 되거나 문장의 뜻을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차등비교구문에 대하여 여러 면에서 통사적, 의미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구성 요소의 생략 문제에 대한 아직 체계적인 논의를 보이지 않았다. 본장에서는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내용을 중심으로 차등비교구문에서 구성 요소의 생략을 살펴볼 것이다.

4.1. 비교주체의 생략

비교주체는 차등비교구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비교주체가 없으면 무엇을 무엇에 비교하는가를 알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생략하면 안 된다.

(12) ?기차보다 빠르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3) ?동생보다 공부를 잘 한다.
(14) ?김씨보다 부자이다.

예문 (12), (13), (14)에서 비교술어가 각각 형용사, 동사, 명사로 나타나는 비교구문이다. 여기서 비교주체가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사구조로 도입하여 살펴보면 모두 비문으로 볼 수 있다. (12)에서는 '무엇이 가치보다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없고, (13)에서 '동생'보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없으며, (14)에서는 '김씨'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다시 말하면, 비교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장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거나 들을이에게 문장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주체가 생략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차등비교구문에서는 비교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5) 한국의 국력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다.
(16) 나는 어제보다 더 아프다.
(17) 주식은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다.

표면적으로 볼 때, (15)에서의 비교주체는 '한국의 국력'이고, 비교대상은 '이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의 국력'과 '이전'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앞에 2장에서 비교되는 두 대상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이점도 갖춰야 서로 비교 관계가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 (15)에서는 '한국의 국력'과 '이전'사이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의 국력'은 사물을 기술하는 명사이고, '이전'은 시간으로 나타나는 명사이다. 둘 다 명사이지만 서로 기술하는 대상은 공통점도, 차이점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러나 (15)은 아무 지장 없이 일상에서 잘 쓰이는 문장이다. 비교대상을 보통 비교표지 앞에 나타나는 규칙으로 판단하면 '이전'은 확실하게 비교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15)의 비교주체는 과연 무엇인가? 비교대상인 '이전'을 보면 이 문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시간으로 나타나는 '이전'과 상응하는 현재 시간은 '현재, 올해, 오늘, 지금'으로 될 수 있다.

(18) (오늘) 한국의 국력은 이전보다 더욱 강하다.

'오늘'이라는 현재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 명사가 예문 (18)에 들어가면 비교주체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즉 생략된 비교주체는 다시 원문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문 (18)은 한국의 국력을 대상으로, 현재와 과거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비교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생략된 비교주체가 원문에 다시 들어가도 문장의 고유한 통사구조는 아무 이상이 없다.

마찬가지로 예문 (16)에서는 '나'와 '어제'를 서로 비교할 수 없고, (17)에서도 '주식'과 '지난 주'는 서로 비교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둘 다 사물의 성질, 상태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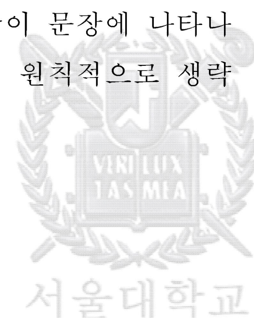
예문 (16), (17)의 비교주체를 환원시키면,

(19) (지금은) 나는 어제보다 아프다.
(20) (이번 주에) 주식은 지난주보다 더 떨어진다.

이상 논의를 보면 비교주체는 차등비교구문에서의 중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생략할 수 없다. 비교주체가 생략되면 비교구문에서 무엇을 무엇에 비교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들을이에게 해당 문장을 이해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 단 둘 다 사물의 성질, 상태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할 때 현재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비교주체, 즉 '오늘, 지금, 올해, 이번 주, 이번 달'따위를 생략할 수 있다.

4.2. 비교대상의 생략

비교대상은 차등비교구문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비교주체와 같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비교주체를 무엇에 비교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략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차등비교구문에서 나타난 다양한 비교대상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비교대상과 비교주체를 비대칭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앞에 4.1.에서 논의했던 비교주체의 생략 문제도 비교주체를 생략하면 그와 비교대상이 비대칭으로 나타난다고 간주할 수도 있지만 비교대상의 생략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비대칭 문제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나타나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통사적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보통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통사적 구조가 같아야 비교 행위를 더 원활히 진행할 수 있고, 그 문장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비교대상이 불완전 생략 현상을 자주 보이기 때문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통사적 구조를 서로 다르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문장이 전달하는 뜻이 헷갈릴게 하기도 한다.

(21) 내 책은 너의 책보다 많다.
(22) 내 책은 너의 것보다 많다.
(23) 내 책은 너보다 많다.
(24) 내 고양이는 너의 것보다 귀엽다.
(25) ?내 고양이는 너보다 귀엽다.

비교대상을 생략하는 현상을 보면, 일반적으로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통사구조가 같을 때, 즉 비교항이 명사구 혹은 동사구로 나타나면 보통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생략한다. 중심어의 생략 현상은 완전히 생략하는 것과 대용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예문 (22)에서는 비교대상의 중심어를 의존명사 '것'으로 대용하지만 (23)은 '너의 책'의 중심어 '책'을 완전히 생략한다. 그러나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 생략문제를 이렇게 단순하게 파악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때는 중심어를 의존명사로 대용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생략할 수도 있다. 예문 (25)는 (23)처럼 '고양이'를 생략하면 문장의 뜻이 (24)와 다르게 나타난다. 즉 (24)에서는 두 고양이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만, (25) 중에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니 고양이와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4.2.에서는 비교대상의 생략 문제를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살펴볼 비교대상의 생략은 완전 생략과 불완전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생략은 비교대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상은 나타나지 않고, 불완전 생략은 비교대상 중 일부 성분, 즉 중심어만 생략하는 것이다.[55] 그 중에 중심어의 생략은 또 다시 완전 생략과 대용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4.2.1. 완전 생략

비교대상을 완전 생략할 때 비교대상은 차등 비교구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26)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7) 앞으로 보다 더 좋은 서비스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문 (26)과 (27)에서는 비교대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서 비교표지 '보다'는 비교격조사라기보다는 부사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보다'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부사로 나타날 때,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을 서로 비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 비하여 한층 더'라는 의미도 포함한다. (26)과 (27)에서 비교대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비교술어를 통하여 되찾을 수 있다. (26)의 비교대상은 '지금', (27)의 비교대상은 '현재'로 알 수 있다.

4.2.2. 불완전 생략

4.2.2.1. 중심어의 대용

(28) 이 책상은 내 책상보다 튼튼하다.
(29) 이 책상은 내것보다 튼튼하다
(30) 누나가 만든 빵은 동생이 만든 빵보다 맛이다.
(31) 누나가 만든 빵은 동생이 만든 것보다 맛이다.

---

55) 중심어: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 중 앞의 명사와 뒤의 명사가 서로 관형관계를 이룰 때, 뒤의 명사를 중심어라고 부른다. 김은희(2002) <현대한어 비교구연구>에서 중심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나온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32) 너의 수강편성 너의 수강편성보다 잘 짜였다.
(33) 너의 수강편성 너의 것보다 잘 짜였다.

위 예문 중에 (28), (30), (32)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다 나타나고, 서로 통사구조도 같다. 반면 (29), (31), (33)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다 나타나지만, 비교대상의 중심어가 의존명사로 대신하여 나타난다. (28)은 비교주체에서 '책상'이 나타나고, 비교대상에서도 '책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면 문장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의사를 전달할 때도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어를 간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할 때 중복된 내용을 그 필요성에 따라 생략 혹은 대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간결하게 하면 위의 (29), (31), (33)에서 비교대상의 중심어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의존명사 '것'으로 그 자리를 대신 나타난다. 여기서 의존명사 '것'은 '대용'의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56]

이상에서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로 통사구조가 같고, 중심어도 같을 때,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다른 것으로 대신 나타나는 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황이나 사람이 언어를 사용하는 심리에 따라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34) 당신 아들이 내 아들보다 귀엽게 생겼다.
(35) *당신 아들이 내 것보다 귀엽게 생겼다.
(36) 우리 할아버지가 네 할아버지보다 혈기가 왕성하다.
(37) *우리 할아버지가 네 것보다 혈기가 왕성하다.

위 예문을 보면, (35), (37)에서는 사람도 의존명사 '것'으로 대신하여 나타난다. 의존명사 '이, 분, 것, 바, 데…'는 '사람, 물건, 장소, 시간, 일'을 대용해서 명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차등비교구문은 주로 사물, 사건, 사람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 '것'은 사물이나 사건을 대신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56) 안효경(2001)에서 '것'은 그것이 지칭할 수 있는 대상에 거의 제약이 없고, 장소나 인물을 제외한 모든 사물이 '것'으로 지칭될 수 있다고 하였다. 윤용선(1989)에서 '것'은 선행 명사구를 대치함으로써 반복을 방지하고 그것이 지닌 의미를 자기 것으로 하는 대용 기능을 주요 의미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면 아직 많이 거북하다.[57] 그리하여 보통 비교대상 뒤에 중심어가 사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중심어를 '것'으로 대신하지 않고 예문 (34), (36)처럼 그대로 나타난다.

(38)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을 먹는 사람보다 더 기쁘다.
(39) *빵을 만드는 사람이 빵을 먹는 것보다 더 기쁘다.

예문 (38)에서는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먹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생략하지 않고 다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중심어가 똑같기 때문에 예문 (39)에서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의존명사로 대신 나타난다. 그러나 (39)는 문제 하나를 드러냈다. 위에서 의존명사 '것'은 사람 대신하여 사용하면 거북하다고 하였다. 예문 (39)에서 그 문제보다는 의존명사 '것'이 '사람'을 대신하여 나타나면 문장의 뜻이 바뀐다는 것이다. (38)은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먹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지만, (39)는 빵을 만드는 사람과 빵을 먹는 사건 자체와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바꾸였다. 다시 말하면, (39)에서 의존명사 '것'을 '사람'으로 대신하여 사용하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다르게 된다는 것이다.

4.2.2.2. 중심어의 완전 생략

앞에서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의 일부 생략 문제에 대한 살펴보았다. 차등비교 구문을 살펴보면, 가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중심어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의존명사 '것'도 완전히 생략한다. 즉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통사구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대칭으로 나타나 비교하고 있다.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우선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주어가 뒤의 중심내용과 어떤 관계를 갖는

57) 안효경(2001)에서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장소'를 지칭하지는 못한다고 하고, 이는 '것'이 지시하는 대표 의미가 사물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한다고 설명하였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심내용의 완전 생략 여부는 주로 그 관계에 달려 있다. 본고에서는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명사가 뒤의 중심내용과 이어진 관계를 5 가지로 나눠 보고, 관계를 살펴보면서 비교대상 뒤의 중심내용의 완전 생략 여부를 고찰해 보도록 한다.[58]

㉠ 소유관계: 중심어는 자주성이 없이 주(主)가 되는 비교대상의 명사에 붙어 있다. 주로 어떤 사물이 사람에게 소유물로 소유될 경우에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의 책상, 너의 책, 그의 집'등이 있다.

(40) 철수의 차는 영희의 차보다 비싸다.
(41) 철수의 차는 영희의 차보다 무겁다.
(42) 철수의 차는 영희의 차보다 빠르게 달린다.

예문 (41), (42)은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를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 (40)에서는 두 차의 값을 비교하는 것이고, (41)에서는 두 차의 무게를 비교하는 것이고, (42)에서는 두 차가 달리는 속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차는 각각 철수와 영희의 소유물로서 사람과 차는 서로 소유관계를 이룬다. 이제 소유관계를 가진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의 완전 생략 여부를 살펴보자. 위 예문의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 '차'를 완전히 생략하면,

(43) ?철수의 차는 영희보다 비싸다.
(44) ?철수의 차는 영희보다 무겁다.
(45) ?철수의 차는 영희보다 빠르게 달린다.

예문 (43), (44), (45)에서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면 문장의 뜻은 (40), (41), (42)과 다르다. (40), (41), (42)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중심어를 둘 다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철수와 영희가 서로 가진 차의 어떤 성

58)마진(1986)에서는 중국어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서로 가지는 관계를 8가지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한국어에 적용하여 그 관계를 5가지로 나누었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질을 비교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43), (44), (45)에서는 그렇지 않다.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면 두 사람의 차를 대상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의 차를 영희 본인과 비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차와 사람을 비교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원문의 목적이 두 사람이 가진 차를 서로 비교하는 것인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면 문장이 원래 가지고 있는 뜻과 다르므로 의미적으로 원문에 어긋난다. 결론을 내리자면, 보통은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앞에 명사의 소유물로 될 경우에는, 그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러나 예외도 없지 않다.

(46) 철수의 책은 영희의 책보다 많다.
(47) 철수의 책은 영희의 것보다 많다.
(48) 철수의 책은 영희보다 많다.

예문 (46)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가지는 책의 수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여기서 철수와 영희 뒤의 중심어 '책'이 모두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47)에서는 비교대상 '영희의 책'의 중심어를 의존명사 '것'으로 대신 나타난다. 앞에서 비교대상의 명사가 그 중심내용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의존명사 '것'으로 대신하여 나타낼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그러나 (48)에서는 의존명사도 생략하고, 즉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였다. 보통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서로 소유관계를 가질 때,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면 그 문장의 뜻은 원문과 다르게 되지만 (48)은 그렇지 않다. 겉으로 보면, (48)은 '철수의 책'과 '영희'를 비교하고 있지만(즉 사물과 사람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 사실은 이 구문에서도 철수의 책과 영희의 책을 비교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긴다. 예문 (45)와 (48)에서 두 구문을 통사적으로 보면 구조가 똑같고, 즉 둘 다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였지만 왜 (45)는 문장의 뜻이 원문과 다르게 되고, (48)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가? 문제점을 바로 비교대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위에 (40), (41), (42)는 두 사람이 각자 가진 차의 가격, 무게, 속도를 비교하지만 (48)에서는 두 사람이 가진 책의 수량을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량을 해당하는 서술어는 '많다, 적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가 있다.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 가능 여부의 문제에 대한 고찰한 결과는 오직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로 수량 및 양을 비교할 때 비교대상이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수량 및 양을 나타나는 서술어의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즉 '많다, 적다'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로 나타날 때 ,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더라도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명백하여 의미상 혼란을 조성하지 않는다.

(49) 내 돈은 너의 돈보다 많다. ⇛ 내 돈 너보다 많다.
(50) 어머님이 자식에게 쏟아 붓는 사랑이 아버지가 자식에게 쏟아 붓는 사랑보다 많다.
⇛ 어머님이 자식에게 쏟아 붓는 사랑이 아버지보다 많다.
(51) 내가 따온 사과는 동생이 따온 사과보다 많다.
⇛ 내가 따온 사과는 동생보다 많다.

예문 (49), (50), (51)에서는 각각 두 사람이 가진 돈의 수량, 자식에게 쏟아 붓는 사랑의 정도, 사과의 양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해도 의미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고 문장의 뜻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상 논의를 보면,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서로 소유관계를 이룰 때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수량 비교를 제외하고,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면 안 된다.

㉡ 친족관계: 중심어는 앞에 사람의 친족이나 혹은 앞에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 뒤에 온다. 예를 들면, '내 아들, 우리 선생님'등이 있다.

(52) 우리 아들은 네 아들보다 건강하다.
(53) 철수의 동생은 영희의 동생보다 솜씨가 좋다.
(54) 우리 오빠는 너의 오빠보다 공부를 잘 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예문 (52)는 두 사람의 아들 몸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고, (53)은 두 사람의 동생 솜씨를 비교하는 것이고, (54)는 두 사람의 오빠 누가 공부를 더 잘 하는지를 비교하는 것이다. (52), (53), (54)에서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중심어가 된 사람이 다 앞에 사람의 친족이나 혹은 앞에 사람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의 완전히 생략 여부를 살펴보자. 위 예문의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 시키면,

(55) ?우리 아들은 너보다 건강하다.
(56) ?철수의 동생은 영희보다 솜씨가 좋다.
(57) ?우리 오빠는 너보다 공부를 잘 한다.

위에 (55), (56), (57)은 통사적으로 보면 아무 이상이 없지만 의미상으로 분명히 (52), (53), (54)과 다르다. (52), (53), (54)에서는 각각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과 서로 무엇을 비교하고 있지만 (55), (56), (57)은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기 때문에 비교주체의 사람과 비교대상의 주어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 사람을 서로 비교하는 것으로 바꾸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55), (56), (57)에서는 비교주체가 (52), (53), (54)와 같지만 비교대상은 이미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예를 들면, (52)에서는 두 아들의 몸 상태를 비교하고 있지만 (55)에서는 '우리 아들'과 '너'를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중심어가 앞에 사람의 친족이나 혹은 앞에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질 때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의 생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친족관계도 소유관계처럼 사람의 수량을 비교할 때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는 생략해도 원문의 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58)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네가 가르치는 학생보다 많다.
⇛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너보다 많다.
(59) 우리 반 학생이 너희반 학생보다 많다.
⇛ 우리 반 학생이 너희반보다 많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예문 (58)과 (59)에서 각각 인수(人數)를 비교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58)에서는 각자 가르치는 학생의 수, (59)에서는 각자 반의 학생의 인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화살표로 표시된 문장은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완전히 생략되었지만 의미상으로 원문과 아무 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앞에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소유관계를 이룰 때도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수량에 대한 비교하면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완전히 생략될 수 있다고 살펴보았다. 즉 양을 비교할 경우에는 비교대상의 주어와 뒤의 중심어가 어떠한 관계를 가져도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완전히 생략될 수 있다.

이상 논의를 보면, 비교대상의 사람과 뒤의 중심어가 서로 친족관계를 이룰 때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무엇을 비교하면, 수량 비교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완전히 생략될 수 없다.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 중에 명사와 뒤에 중심어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그 중에 소유관계와 친족관계가 비슷한 점이 많다. 소유관계는 어떤 사물이 사람에게 소유물로 소유되는 것이고, 친족관계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소유되거나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소유관계와 친족관계를 이루는 명사가 다 사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고려보면 소유관계와 친족관계는 같은 관계로 묶일 수도 있다. 그 유일한 차이점은 소유관계를 이루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사물이고, 친족관계를 이루어지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사람이다.

㉢ 속성관계: 속성관계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고는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는 외재 및 내재적 요소나 특징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철수의 키, 나의 힘 , 김치의 맛, 책의 내용'등이 있다.

(60) 철수의 키는 영희의 키보다 크다.
(61) 철수의 경험은 영희의 경험보다 풍부하다.
(62) 땅콩 과자의 맛은 초콜릿 과자의 맛보다 고소하다.
(63) 이 농구장의 면적은 그 농구장의 면적보다 크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예문 (60)과 (61)은 두 사람이 각각 가진 외재적인 신체기관과 내재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고, (62)와 (63)은 두 사물이 각각 가지고 있는 내재 및 외재적인 특징을 비교하는 것이다. (60), (61), (62), (63)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중심어가 모두 명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을 무엇에 비교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이나 사물을 외재적 및 내재적 요소 및 어떤 특징을 비교할 때, 말을 간략하기 위해서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완전 생략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64) 철수의 키는 영희보다 크다.
(65) 철수의 경험은 영희보다 풍부하다.
(66) 땅콩 과자의 맛은 초콜릿 과자보다 고소하다.
(67) 이 농구장의 크기는 그 농구장보다 크다.

자세히 보면, (64), (65), (66), (67)에서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한 것으로 나타난다. (60), (61), (62), (63)과 대조하여 비교하면 (64), (65), (66), (67)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다시 말하면,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더라도 원문에서 나타나는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고 의미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를 서로 속성관계를 이루어질 때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무엇을 비교하면,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 시간관계: 시간 관계는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서로 시간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중심어로 나타나는 명사가 어느 시간 범위 안에 속한다. 예를 들면, '어제의 사건, 올해의 수익, 내년의 예산' 등이 있다.

(68) 오늘 신문은 어제 신문보다 재밌다.
(69) 올해 기온은 작년 기온보다 높다.
(70) 이번 학기 성적은 지난학기 성적보다 떨어졌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위에 예문 중에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는 서로 시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관형격조사 '의'는 나타나지 않지만 서로 관형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어제 신문'은 '어제의 신문', '작년 기온'은 '작년의 기온', '지난 학기 성적'은 '지난 학기의 성적'으로 환원시킬 수도 있지만 여기서 관형격조사 '의'를 생략하면 문장은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것을 생략시켰다. (68), (69), (70)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의 중심어를 둘 다 명시적으로 나타난다. 이제 시간관계를 가진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위 예문의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시키면,

(71) 오늘 신문은 어제보다 재미있다.
(72) 올해 기온은 작년보다 높다.
(73) 이번 학기 성적은 지난학기보다 떨어졌다.

예문 (71), (72), (73)에서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지만 문장 의미상으로 보면 아무 혼란도 야기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느 정도를 보면,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는 문장은 원문 (68), (69), (70)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명확하다. 예문 (68), (69), (70)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둘 다 나타나지만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문장에 들어가면 오히려 잉여적인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상 논의를 보면,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서로 시간관계를 이룰 때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무엇을 비교하면,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해도 의미를 전달하는 데 혼란이 없다.

㉰ 지역관계: 지역 관계는 비교주체 및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서로 지역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즉 중심어가 어느 지역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한국의 수도, 서울의 빌딩'등이 있다.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에 나타나는 중심어가 서로 지역관계를 이루는데, 그 중심어의 완전 생략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여부 문제는 위에서 논의했던 어느 관계보다 더 복잡하다. 위에서 논의한 소유관계, 친족관계 및 속성관계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의 완전 생략 여부는 뚜렷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관계와 같은 경우에는 중심어가 완전히 생략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74) 한국의 양궁 선수는 중국의 양궁 선수보다 잘 한다.
(75) 아프리카의 사자는 다른 지역의 사자보다 사납다.
(76) 서울의 빌딩은 북경의 빌딩보다 높다.
(77) 이 동네의 꽃은 저 동네의 꽃보다 예쁘게 피어 있다.

위에 예문 (74), (75)는 유정물 서로 비교하는 것이고, 반면 (76), (77)은 무정물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리고 (74)와 (77)의 비교술어는 동사로 나타나고, (75)와 (76)의 비교술어는 형용사로 나타난다. 이제 각 예문 중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완전히 생략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78) 한국의 양궁 선수는 중국보다 잘 한다.
(79) 아프리카의 사자는 다른 지역보다 사납다.
(80) 서울의 빌딩은 북경보다 높다.
(81) 이 동네의 꽃은 저 동네보다 예쁘게 피어 있다.

예문 (78), (79), (80), (81)에서는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였다. 겉으로 보면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해도 의사를 전달할 때 혼란을 야기하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문장이 어색하다는 느낌도 든다. 예를 들면, 예문 (74)에서는 한·중 양국 간 양궁 선수의 실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78)에서 '중국'뒤의 '양궁 선수'를 완전히 생략하면 문장의 의미 그대로 정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반면에 뭔가 어색하다는 느낌도 든다. 지역관계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생략 할 수 있는지를 더 정확하기 알아보기 위해서 해당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59] 조사 결과

59)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차등비교구문 중에 비교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가 서로 지역관계를 가질 때, 그 중심어의 완전히 생략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본 설문조사는 38명 한국인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중에 서울대학교 학부 재학생은 28명이고, 일반 직장인은 1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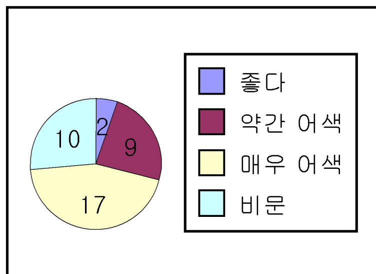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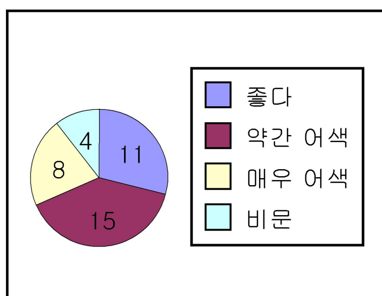
본 설문조사 중에 나타나는 예문이 우선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유정 명사와 무정 명사로 나누고, 비교 대상의 명사와 뒤의 중심어 사이에 관형격조사 '의'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눠서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자는 그 문장의 정확성에 대하여 '좋다/ 약간 어색/ 매우 어색/ 비문'과 같이 4가지 의견으로 나누어 모았다. 결론을 보면,

관형격조사 '의'가 있는 경우:

(78) 한국의 양궁 선수는 중국보다 잘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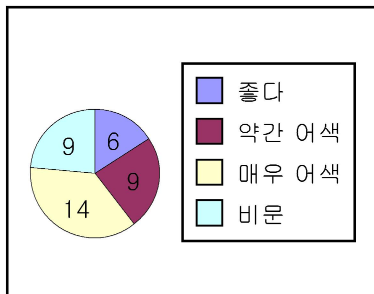


(79) 아프리카의 사자는 다른 지역보다 사납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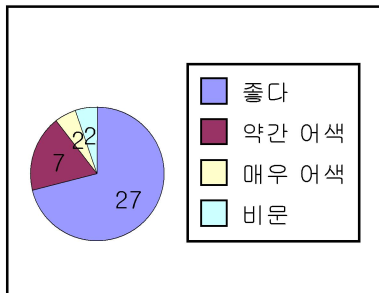


(80) 서울의 빌딩은 북경보다 높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81) 이 동네의 꽃은 저 동네보다 예쁘게 피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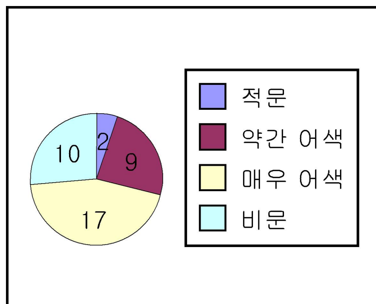
예문 (78), (79), (80), (81)은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였다. 그 중에 (78)와 (79)의 중심어는 유정명사로 나타나고, (80)와 (81) 무정명사로 나타난다. 조사 결과를 보면, (78), (79), (80), (81)은 통사구조가 같지만 사람마다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 여부의 문제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예문 (78)과 같은 경우에는 비교대상 뒤의 '선수'를 생략하면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사람 중에 그것이 정확한 문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지만 (79)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문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11명에 이른다. 반면 (78)을 '비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10명이 되지만 (79)와 같은 경우에는 4명밖에 없다. 그 나머지 대다수는 (78), (79)를 약간 어색함과 매우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어색하다고 느낄 때 그 문장은 정확한 문장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반면에 '비문'으로 판단하기도 경솔하다. 즉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여 그 문장이 가진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뭔가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든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예문 (80)에 대한 의견도 천차만별이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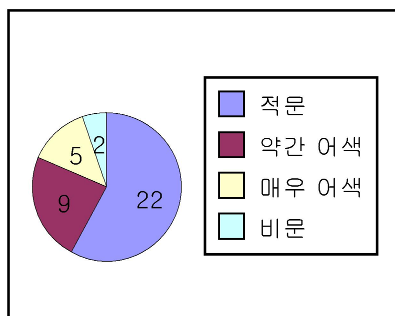
그러나 예문 (81)은 좀 다르다. 그림을 보면, 이 문장을 정확한 문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무려 27명에 이른다. (80)와 (81)은 두 문장의 통사구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났을까? 그 원인은 정확히 밝히지 못하지만 아마도 일상에서 이와 같은 비교를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두 동네의 사물에 대한 비교를 자주 하기 때문에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가 굳이 나타나지 않아도 문장 의미상으로 볼 때 혼란이 야기하지 않는다.

관형격조사 '의'가 없는 경우:

(82) 한국 사람은 중국보다 바쁘게 움직인다.



(83) 한국 소고기는 미국보다 비싸다.



위에 그림을 보면 (82)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문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밖에 없지만, (83)에서는 무려 22명에 이른다. 반면에 (82)를 '비문' 문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10명에 이르지만 (83)에서는 2명밖에 없다. (82)와 (83)도 역시 (80)과 (81)처럼 두 문장의 통사구조가 똑같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참여한 사람이 이 두 문장에 대한 의견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난다. 그 이유가 뭔지 역시 밝히기 어렵다.

서로 지역관계를 이루어져 있는 비교대상의 주어와 뒤에 나타나는 중심어의 완전히 생략 여부 문제는 다른 어느 관계보다 더 복잡하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해당 문장이 어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어색한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생략하면 문장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지 않은 것을 선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해도 의사소통을 할 때 아무 지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의 완전 생략 여부의 결론을 내리기 애매할 때 그것을 생략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비교대상은 차등비교구문에서 중요한 성분으로 비교주체와 같이 문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비교주체를 무엇에 비교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략하면 안 된다. 그러나 '보다'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부사로 간주될 때 비교대상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고, 또는 비교대상 뒤에 나타나는 중심어만 생략 시킬 수 있다. 중심어의 생략은 완전 생략과 의존명사로 대용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어의 대용은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통사구조가 같고, 중심어도 같을 때, 비교대상 뒤에 나타난 중심어를 주로 의존명사 '것'으로 대신하여 나타낸다.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할 경우에는 그 중심내용의 완전 생략 여부를 중심어가 그 앞의 명사와 이어진 어떤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 관계를 5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결론을 보면, 소유관계와 친족관계를 가질 때, 중심어를 생략할 수 없지만, 비요내용은 수량이 될 때 중심어를 생략할 수 있다. 속성관계와 시간관계를 가질 때, 중심어를 생략할 수 있다. 지역관계를 가질 때, 문장의 의미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중심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나은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3. 비교내용의 생략

차등비교구문에서의 비교내용은 필수적인 요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두 사물을 서로 비교할 때 우선 비교내용이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비교내용이 없으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루 무엇을 비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교구문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예외도 없지 않다.

(84) 아버지가 나보다 키가 크다.
(85) 아버지의 키가 내 키보다 크다.
(86)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예문 (84)와 (85)에서는 비교내용 '키'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고, (86)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다. 여기서 비교내용 '키'를 생략하였지만 두 사람이 키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예문 (86)에서 '크다'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덩치에 쓰일 수도 있고, 키에 쓰일 수도 있고, 혹은 눈에 쓰일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이 크다고 표현할 때 주로 그 사람이 키가 크다고 생각한다. (84)와 (85)를 보면, 비교내용의 위치가 다른 구성 요소보다 자유롭다. (84)에서 '키'는 비교술어 앞에 나타나고, (85)에서는 비교주체와 비교대상 중에 나타난다. 예문 (86)에서 비교내용 '키'가 나타나지 않지만 왜 비교술어 '크다'를 보면 두 사람이 키를 비교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까? 자세히 보면, 비교내용은 비교술어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87) 장미가 국화보다 향기롭다.
(88) 기차가 버스보다 빠르다.

예문 (87), (88)에서도 비교내용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술어를 통해서 숨겨 있는 비교내용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향기롭다'를 보면 장미와 국화는 서로 나는 '향'을 비교하는 것으로 알 수 있고, '빠르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 데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걸리는 시간이 짧거나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기간이 짧다고 평가할 때에 사용하기 때문에 (88)에서는 기차와 버스의 서로 달리는 속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87)의 비교내용은 '향'이고 (88)의 비교내용은 '속도'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보면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 전제는 문장의 비교술어가 비교내용을 해당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비교내용을 다시 나타낼 필요가 없다. 즉 생략된 비교내용은 원문에서 되찾을 수 있다. 이어서 품사별로 비교내용의 생략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자.

4.3.1. 비교내용의 생략 가능

4.3.1.1. 형용사 비교술어

비교내용의 생략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먼저 속성명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차등비교구문을 보면, 서술어가 형용사로 나타날 때 비교내용의 생략은 속성명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비교술어 '높다'를 보면, 사물의 높이를 기술하는 것을 바로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다. 왜냐하면 '높다'는 사물에게 적용할 때, '높이'에만 해당되고, 사물의 다른 성질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문 (88) 중에 비교내용 '속도'를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술어 '빠르다'가 두 교통수단이 서로 '속도'를 비교한다는 정보를 이미 제공하기 때문이다.

속성명사는 사물의 추상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말이다. 예를 들면, 사물의 가격, 맛, 길이 등 추상적인 특징이다. 옷의 가격을 표시할 때는 '싸다, 비싸다'로 표현하고, 음식의 맛은 표시할 때는 '달다, 쓰다, 짜다, 맛있다'등으로 표현하고, 사물의 길이를 표시할 때는 '길다, 짧다'로 표현한다. 이상으로 보면 속성명사는 그것을 꾸며주는 형용사와 일대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속성명사가 꾸며준 단일 성질형용사는 한 가지 속성에게만 적용하고, 그리고 단일 성질형용사만 해당 속성명사만 꾸며줄 수 있다.[60] 예를 들면, '가볍다'는 사물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고, '비싸다'는 사물의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멋있다'는 사람이 생긴

60) 본고는 속성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를 단일 성질형용사로 말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모양을 말하는 것이다. 즉 단일 성질형용사를 보면 숨겨 있는 속성명사를 연상할 수 있다. 반대로 속성명사를 보면 그를 표시하는 단일 성질형용사도 연상할 수 있다.

(89) 망고는 사과보다 노랗다.
(90) 망고는 사과보다 맛있다.
(91) 망고는 사과보다 비싸다.

위 예문에서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동일하지만 비교술어는 다르다. 비교술어를 보면 (89), (90), (91)에서의 비교내용이 다르다고 알 수 있다. 비교내용이 안 나타날 때, 비교술어가 비교내용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가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문 (89)에서 '노랗다'를 보면 두 과일의 색깔을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고, (90)에서 '맛있다'를 통하여 두 과일의 맛을 비교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91)에서 서술어 '비싸다'를 사용하여 두 과일의 가격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다. 노랗다-색깔, 맛있다-맛, 비싸다-가격, 이처럼 속성명사와 단일 성질형용사는 서로 일대일 관계를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어느 하나를 보기만 해도 나머지를 연상할 수 있다. 그렇게 때문에 단일 성질형용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비교내용을 나타내지 않아도 비교구문의 비교항이 서로 무엇을 비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차등비교구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단일 성질형용사가 그와 일대일 관계를 가지는 속성명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자주 사용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높다, 낮다 ⇒ 높이
길다, 짧다 ⇒ 길이
깊다, 얕다 ⇒ 깊이
크다, 작다 ⇒ 크기, 키
가볍다, 무겁다 ⇒ 무게
두껍다, 얇다 ⇒ 두께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싸다, 비싸다 ⇒ 가격
덥다, 춥다 ⇒ 기온
어둡다, 밝다 ⇒ 밝기
뚱뚱하다, 날씬하다, 말리다 ⇒ 몸집
노랗다, 빨갛다, 하얗다 ⇒ 색깔
활발하다, 명랑하다, 급하다 ⇒ 성격
기쁘다, 슬프다, 흥분하다 ⇒ 기분
달다, 쓰다, 시다, 맵다 ⇒ 맛
예쁘다, 멋있다 ⇒ 모양
똑똑하다, 둔하다 ⇒ 사고력
빠르다, 느리다 ⇒ 속도
조용하다, 시끄럽다 ⇒ 주변 환경
건조하다, 축축하다 ⇒ 습도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이상과 같은 단일 성질형용사로 나타나면, 해당 구문의 비교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반대로, 다의 형용사가 한 가지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도 하고, 또 다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둘이 일대일 관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때, 원칙적으로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자. 그러나 비교내용은 절대적으로 생략 불가능 한 것이 아니다. 비교내용은 전후 문맥에서 되찾을 수 있으면 다의 형용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자리에 오더라도,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92) 철수: 준희가 해외 여행을 많이 다녀 봐서 우리보다 시야가 넓을 거야.
영희: 우리보다 넓어?

예문 (92)에서는 영희가 말하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주체와 비교내용이 모두 생략되었다. 이 문장을 단독적으로 분석하면 비교주체가 누구인 지, 두 사람의 무엇에 대하여 비교해서 결론을 '넓다'로 내리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문제점들은 앞뒤 문맥을 통하여 쉽게 풀 수 있다. 즉 생략된 비교내용은 전후 문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맥에서 다시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 중에 다시 제시할 필요가 없다.

4.3.1.2. 동사 비교술어

3장에서는 동사 중에 오직 변성 동사와 심리 동사 두 가지만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논의하였다. 형용사에서 파생해 온 변성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은 나타날 필요가 없다.

(93)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예뻐졌다.
(94) 날이 갈수록,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의 정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진다.

예문 (93)에서 비교내용은 '얼굴'이고, (94)에서 비교내용은 '정도'이다.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95) 그녀가 이전보다 훨씬 예뻐졌다.
(96) 날이 갈수록,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이전보다 더 깊어진다.

예문 (95)와 (96)을 보면 비교내용을 생략해도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아무 혼란이 없다. 앞에서 속성명사와 일대일 관계를 가진 성질 형용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고 살펴보았다. '예뻐지다, 깊어지다'와 같은 동사는 형용사 '예쁘다, 깊다'에서 파생해 온 것이므로 당연히 단일 성질형용사처럼 해당 명사와 일대일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형용사에서 파생해 온 변성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가 될 때에도 비교내용은 나타날 필요가 없다.

형용사에서 파생해 온 심리동사도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

(97) 동생의 합격 소식에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기뻐하신다.
(98) 강아지가 죽은 것에 동생은 형보다 슬퍼한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97)과 (98)의 비교술어 '기뻐하다', '슬퍼하다'는 형용사 '기쁘다', '슬프다'에서 파생해 온 것이니 단일 성질형용사처럼 해당 명사와 일대일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내용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

4.3.1.3. 부사 비교술어

앞에서 정도부사가 동사 앞에 나타나면, 그 동사에게 정도성을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정도성을 가지지 못한 동사도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살펴보았다. 정도부사가 바로 서술어가 될 수 없지만 동사의 앞에 놓이면 원래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정도부사를 차등비교구문의 의미적인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 정도부사가 들어가 있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99) 형은 나보다 더 일찍 왔다.
(100) 그는 나보다 빨리 뛴다.
(101) 철수는 영희보다 그림을 잘 그린다.

예문 (99), (100), (101)은 정도성을 가지지 못한 동사가 정도부사를 앞에 붙여서 자연스럽게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온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문에서 비교내용은 다 나타나지 않는다. (99)에서 '형'과 '동생'은 도착한 시간을 비교하는 것이고, (100)에서는 두 사람이 뛰는 속도, (101)에서는 두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실력을 비교하는 것이다. (99), (100), (101)에서는 비교내용이 나타나지 않지만 문장을 이해하는 데 아무 혼란도 야기하지 않는다. 그럼 그 비교내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까? 바로 동사 앞에 나타나는 부사 비교술어이다. 정도부사도 단일 성질형용사처럼 속성명사를 수식한다. (99), (100), (101)에서 '일찍'은 시간에 적용되고, '빨리'는 속도에 적용되며, '잘'은 그림을 그리는 실력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면 정도부사도 속성명사처럼 해당 명사와 일대일 관계를 갖는다. 그러므로 비교구문에서 나타난 정도부사를 보면 해당 비교내용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내용을 두 번 다시 나타낼 필요가 없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4.3.1.4. 명사 비교술어

명사도 정도부사처럼 직접 서술어 자리에 올 수 없지만 지정사 '이다'앞에 나오면 정도성을 지닌 명사도 의미적인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3장에서 '이다'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올 때, 그 앞에 선행할 수 있는 명사는 형용사성 명사, 비유로 쓰인 명사, 방향성 명사 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비교구문에서 나타난 이 3가지 명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각 명사는 해당 비교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

(102) 김 군은 이 군보다 부자이다.
(103) 철수는 영희보다 돌대가리이다.
(104) 그 사람이 나보다 오른쪽이다.
(105) 동생은 형보다 이기적이다.

예문 (102)에서 부자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부자'가 서술어 '이다' 앞에 나오면 두 사람은 가진 재물의 양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돌대가리'를 보면 두 사람의 어리석은 정도에 대한 비교하는 것이고, '오른쪽'을 보면 두 사람이 지금 각자 처하고 있는 위치나 방향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이며, '이기적'을 보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꾀할'정도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형용사성 명사, 비유로 쓰인 명사, 방향성 명사를 보면 해당 비교구문의 비교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나타날 필요가 없다.

4.3.1.5. 관형사 비교술어

관형사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나타날 때 보통 명사 앞에 붙어 있다. 관형사는 다른 품사와 달리 극소수만 명사 앞에 나와서 비교주체와 비교대상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준다. 관형사가 나타난 비교구문을 살펴보면, 비교내용은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역시 앞에 논의하였던 명사처럼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6) 동생은 형 것보다 헌 옷을 입었다.

(107) 아버지가 어머니 것보다 새 차를 몰고 다닌다.

예문 (105)와 (106)에서 비교내용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출현된 관형사가 비교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비교내용은 따로 나타날 필요가 없다.

4.3.2.비교내용의 생략 불가능

4.3.2.1. 형용사 비교술어

앞에서 비교술어가 단일 성질형용사로 나타나면, 속성명사의 특성 때문에 차등비교구문의 비교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고 살펴보았다. 그러나 속성명사가 아닌 다른 구체적인 명사가 비교내용으로 나타날 때,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없다. 구체적인 명사는 형용사 비교술어와 일대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로 무엇에 대한 비교하는 것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107) 선생님이 나보다 책이 많다.

(108) 형은 동생보다 체격이 좋다.

예문 (107)과 (108)에서 '책, 체격'을 속성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없다. (107)에서 '책'과 '많다', (108)에서 '체격'과 '좋다'는 서로 일대일 수식 관계를 갖지 않는다. (107)과 (108) 중에 나타내는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아래 구문은 비문이 되거나 의미가 혼동될 수도 있다.

(109) *선생님이 나보다 많다.

(110) ?형은 동생보다 좋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예문 (109)에서 비교내용 '책'을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 (110)은 비문이 아니지만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형은 동생보다 무엇이 좋은지를 알 수 없다.

단일 성질형용사는 속성명사와 일대일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지만 다의 형용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은 생략이 거의 불가능하다. 서술어 자리에 다의 형용사를 나타낼 때,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술어 등 다른 요소를 통하더라도 비교내용을 해당하는 정보를 되찾을 수 없기 때문에 비교내용은 생략이 안 된다.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문장은 비문이 되거나 그 문장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111)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나이가 많다.
(112) 내가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많다.
(113)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최 선생님은 장 선생님보다 경험이 더 많다.

위에 밑줄 친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114)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많다.
(115) *내가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각 방면에서 여러분보다 많다.
(116)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라면 최 선생님이 장 선생님보다 더 많다.

예문(111), (112), (113)에서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114), (115), (116)은 비문이 되거나 어색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많다'는 '수효나 분량, 정도 따위가 일정한 기준을 넘다'는 뜻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114)처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햇수를 표시할 때,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았으면 '많다'는 '나이'를 수식해서 '나이가 많다'를 말할 수 있다. (115)에서는 사고 행위를 통하여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을 때는 '많다'는 '아는 것'을 수식해서 '아는 것이 많다'를 말할 수 있다. (116)에서는 자신이 실제로 해 보거나 겪어 보고, 또는 거기서 얻은 지식이나 기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그 '경험'은 '많다'를 사용하여 수식할 수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있다. (114), (115), (116)은 비문이나 어색한 문장으로 된 이유는 비교내용을 생략한 다음에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이 서로 무엇을 비교하는 것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속성명사와 달리 일반 구체적 명사와 같은 비교내용이 생략되면 문장 중에 있는 다른 요소를 통해서도 비교내용을 되찾을 수 없다. 위에 예문 (114)를 다시 인용하면,

(114)?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많다.

예문 (114)를 보면 할아버지가 할머니보다 많다는 것만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없다. 나이가 많다는 가능성도 있고, 말하는 말이 많다는 가능성도 있고, 가진 돈이 많다는 가능성도 있다. 또 어떤 모임에서 할아버지가 된 사람의 인수가 할머니가 된 사람의 인수보다 많다는 가능성도 있다. 그 외에 수없는 비교내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다의 형용사가 비교술어가 되면 비교내용은 생략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의 형용사는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속성명사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우리에게 그 문장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야기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일부 다의 형용사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기본의미가 되고 나머지는 그 기본의미로부터 새로운 뜻이 파생된 것이다. 다의 형용사가 기본의미만 나타날 때, 차등비교구문의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넓다:

①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

② 마음 쓰는 것이 크고 너그럽다.

③ 내용이나 범위 따위가 널리 미치다.

예를 들면 형용사 '넓다'는 위에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다. 그 중에 ①번은 기본의미이고, 나머지 ②,③번은 ①번으로부터 새로운 뜻이 파생된 것이다. 지금부터 '넓다' 의 셋 가지 뜻을 자세히 살펴보자.



VERI LUX TAS MEA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15) 고속도로가 간선도로보다 너비가 넓다.
(116) 그 사람이 나보다 도량이 넓다.
(117) 철수가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 봐서 다른 친구보다 시야가 넓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형용사 '넓다'는 '면적', '내용 범위'뿐만 아니라, '마음 쓰는 것'에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 중에 기본의미로 '면적'을 수식하고, 나머지 '도량'이나 '시야'를 수식할 때 파생의미로 한다. '넓다'와 같은 형용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그 형용사의 기본의미로 명사를 수식하면 비교내용은 생략할 수 있다. 반대로 형용사의 파생의미로 명사를 수식하면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없다. 위 예문 중의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118) 고속도로가 간선도로보다 넓다.
(119) ?그 사람이 나보다 넓다.
(120) *철수가 외국 여행을 많이 다녀 봐서 다른 친구보다 넓다.

예문 (118)을 보면, 비교내용 '너비'를 생략해도 문장은 구조상, 의미상에서 아무 이상 없이 뜻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그러나 (116), (117) 중에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문장은 어색하다. (119)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와 '나'무엇이 '넓다'는 것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120)에서도 '철수'가 다른 친구보다 무엇이 '넓다'는 것을 알아볼 수가 없다.

4.3.2.2. 동사 비교술어

변성동사 중에 고유어 변성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을 나타내야 한다. 고유어 변성동사는 그 변화의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변화가 어떤 면에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없다. 그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문장의 의미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121) 산업 등 8 개 업종이 87년 여름의 분규 후에 생산량을 평소보다 대폭 늘렸다.
(122) 휴맥스 상반기 주가는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다.

예문 (121)과 (122)에서는 비교내용은 각 '생산량, 주가'이다. 물론 '늘리다, 떨어지다'등과 같은 변성동사는 양의 변화를 암시하지만, 만일 비교내이 안 나타나면 어떤 양의 변화인지 알 수 없다.

(123) ?산업 등 8 개 업종이 87년 여름의 분규 후에 평소보다 대폭 늘렸다.
(124) ?휴맥스 상반기 지난해보다 조금 떨어졌다.

보면 알 수 있듯이 (123)에서는 무엇이 늘렸는지 알 수 없고, (124)에서도 무엇이 떨어진지를 모른다. 따라서 고유어 변성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서술어 자리에 올 때 비교내용을 나타내야 한다.
심리동사도 변성동사처럼 고유어 심리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을 나타내야 한다. 그 이유는 변성동사와 같기 때문에 여기서 예문만 제시하고 자세히 논의하지 않는다.

고유어 심리동사:

(125) 누나가 동생보다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126) 할머니가 다른 식구보다 아침에 빵을 먹는 것을 싫어하신다.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127) *누나가 동생보다 좋아한다.
(128) *할머니가 다른 식구보다 싫어하신다.

이상에서 비교내용의 생략 여부를 고찰하였다. 결론을 내리자면, 비교술어가 형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용사와 같은 경우에는, 비교내용은 속성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고, 다른 구체적인 명사이면 생략할 수 없다. 형용사에서 파생해 온 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은 나타날 필요가 없고, 반면에 고유어 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은 생략하면 안 된다. 지정사 '이다'앞에 나타나는 명사, 동사 앞에 나타나는 정도부사 및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자체가 그 비교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4.4. 요약

4장에서 차등비교구문에서 구성 요소의 생략 문제를 다루었다. 여기서 논의한 구성요소가 비교주체, 비교대상과 비교내용 3가지이다. 먼저 4.1.에서 비교주체의 생략을 살펴보았다. 비교주체가 없으면 무엇을 무엇에 비교하는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등비교구문에서 일반적으로 비교주체를 생략할 수 없다. 그러나, 두 사물의 성질 혹은 상태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할 때, 현재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비교주체를 생략할 수 있다. 4.2.에서 비교대상의 생략을 살펴보았다. 비교대상의 생략은 완전 생력과 불완전 생략으로 나눌 수 있다. 비교격조사 '보다'는 차등비교구문에서 부사로 간주될 때 비교대상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다. 비교대상의 불완전 생략은 비교대상 뒤의 중심어를 대상으로 생략 시키는 것이다. 중심어의 생략은 완전 생략과 의존명사로 대용으로 나눌 수 있다. 완전 생략 여부는 중심어는 그 앞의 명사와 가지는 관계를 5 가지로 살펴보았다. 4.3.에서 비교내용의 생략을 살펴보았다. 비교내용의 생략은 비교술어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내용의 생략문제를 비교술어의 품사별로 논의하였다. 비교술어가 명사, 부사 및 관형사로 나타날 때,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형용사 비교술어 같은 경우에는 속성명사가 비교내용이 될 때,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고, 그 외에 생략할 수 없다. 동사 비교술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사가 형용사에서 파생으로 오면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고, 고유어 동사가 비교술어로 나타날 때,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없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5. 결론

본고는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을 고찰하였다. 비교구문은 모든 언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문법 범주이지만 한국어는 비교결과가 서술어를 통하여 나타난다. 비교주체, 비교대상 등 기본 요소가 비교구문을 구성되지만 일상에서 문장을 간략하기 위하여 비교구문의 요소를 생략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본고는 현대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을 중심으로 비교술어의 품사를 다루고, 구성요소의 생략 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 및 대상을 제시하였다. 사물을 기술 및 설명할 때, 다른 사물과 비교할 때가 많다. 비교는 크게 동등비교와 차등비교로 나눌 수 있다. 본고는 차등비교구문을 대상으로, 비교술어의 품사와 구성 요소의 생략 문제를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우선 비교구문의 연구사를 검토하고 정리하였다. 연구사를 보면, 한국어 비교구문에 대한 연구는 통사적인 연구와 의미적인 연구로 나눌 수 있고, 초기에는 통사적 연구가 많았지만, 점점 의미적 연구가 많아졌다.

2장에서는 본고의 중심 내용을 논의하기 전에 비교구문의 기본적 개념을 살펴보았다. 먼저 비교구문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교구문의 성립 요건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비교구문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비교구문을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차등비교구문의 형태 및 통사구조를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를 살펴보았다. 비교술어 자리에 자주 나타나는 형용사를 비롯하여, 일부 동사와 명사를 포함해서 살펴보았다. 명사, 부사 및 관형사가 차등비교구문에서 통사적인 비교술어가 될 수 없지만 의미적인 비교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논의의 결론은 형용사 중에서 오직 성상형용사가 정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동사 중에 변성동사와 심리동사가 차등비교구문의 비교술어의 자리에 올 수 있다. 명사 비교술어는 오직 정도성을 가진 형용사성 명사, 비유로 쓰인 명사 및 방향성 명사가 가능하다. 부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사 중에 방식부사, 정도부사와 시간부사는 비교술어가 될 수 있다. 또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주로 성상관형사로 나타난다.

4장에서는 차등비교구문에서 구성 요소의 생략 문제를 살펴보았다. 원칙적으로 차등비교구문에서는 비교주체, 비교대상, 비교표지, 비교술어, 비교내용과 같은 구성 요소가 있어야 비교구문이 성립될 수 있지만 일상에서 차등비교구문이 사용될 때, 상황이나 언어 습관에 따라 일부 요소를 생략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본장에서는 우선 구성요소의 생략을 비교주체의 생략, 비교대상의 생략, 그리고 비교내용의 생략 3가지로 나누었다. 비교주체는 차등비교구문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통사적으로 생략할 수 없지만 두 사물의 성질, 상태를 대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할 때 현재를 표현하는 시간으로 나타나는 비교주체, 즉 '오늘, 지금, 올해, 이번 주, 이번 달'따위를 생략할 수 있다. 비교대상의 생략은 완전 생략과 불완전 생략으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비교표지 '보다'가 부사로 간주할 때 비교대상을 완전히 생략할 수 있고, 그 외에 비교대상의 중심어만 생략이 가능하다. 중심어의 생략은 다시 완전 생략과 대용으로 나눌 수 있다. 중심어의 대용은 비교주체와 비교대상은 서로 통사구조가 같고, 중심어도 같을 때, 비교대상 뒤에 나타난 중심어를 의존명사 '것'으로 대신하여 나타난다. 중심어를 완전히 생략할 경우에 중심어가 그 앞의 명사와 이어진 어떤 관계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5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결론을 보면, 소유관계와 친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수량 비교 외에 중심어를 생략할 수 없고, 속성관계와 시간관계는 중심어를 생략할 수 있다. 지역관계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상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중심어를 생략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비교내용을 생략 여부를 살펴보았다. 비교술어가 형용사로 나타날 경우에는 비교내용은 속성명사일 때 생략할 수 있고, 다른 구체적인 명사이면 생략할 수 없다. 비교술어가 동사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동사가 형용사에서 파생해 온 것이라면 비교내용은 생략할 수 없다. 반면에 고유어 동사가 비교술어가 될 때, 비교내용을 생략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정사 '이다' 앞에 나타나는 명사, 동사 앞에 나타나는 부사 및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는 자체가 그 비교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교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이상으로 본고는 한국어 차등비교구문을 대상으로 비교술어를 고찰하고, 구성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요소의 생략 문제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를 통하여, 품사 중에 비교술어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또 차등비교구문에서 구성 요소의 생략 현상 및 이유를 밝히는 것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본고는 중심어의 완전 생략 여부는 중심어가 그 앞에 명사와 가지는 관계를 5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중심어는 그 앞에 명사와 가지는 관계를 살펴보았던 5 가지 외에 또 있다. 본고에서 그 여러 가지 관계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5 가지만 선택해서 논의하였다. 중심어는 그 앞에 명사와 가지는 다른 관계에 대한 논의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참고문헌

강명윤(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한신문화사

고영근· 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권재일(1988), "문법기술에서의 정도성"에 대하여, 《국어국문학》100, 국어국문학회

권재일(1992), 《한국어 통사론》, 민음사

김귀화(1988), "국어의 격 연구: 격 중출문과 주어 인상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 연구(서강대)14

김승렬(1988), 《국어 어순 연구》, 한신 문화사

김경열(2007), "비교구문의 범위와 특성에 대하여", 《개신어문연구》, 26-46

김경열(2007), "형용사 비교구성의 특성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경훈(1977), "국어의 부사어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규하(1995), "국어의 비교구문에 관한 역사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남탁(1993), "정도성 연구", 문학과 언어, 경북대학교

김남탁(1994ㄱ), "국어 정도표시 명사에 대하여", 《문학과 언어》15, 문학과 언어연구회

김남탁(1994ㄴ), "척도와 정도", 《우리말의 연구》, 우골탑

김남탁(1994ㄷ), "속성정도표시어와 상태정도표시어, 어문론총 28, 경북어문학회

김남탁(1995), "정도구문의 비교 특성", 《언어과학 연구》, 209-225

김봉모(1990), "국어 견줌말 연구", 《한글》 209, 한글학회, 33-58

김선희(1972), "한국어 비교구문의 구문론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선희(1985), "체언 수식 부사의 의미 분석", 《한글》187, 한글학회, 123-139

김승곤(1987), "견줌월 연구", 《한글》196, 한글학회, 195-218

김용석(1986), "접미사 '-적'의 용법에 대하여", 배달말, 배달말학회, 73-89

김영희(1974),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1, 271-311

김영희(1976), "형용사의 부사화 구문", 《어학연구》12-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소, 182-189
김영희(1988), 《한국어 통사론의 모색》, 탑출판사
김영희(1991), "종속접속문의 통사적 양상",《들메 서재극 박사 환갑 기념논문집》
김정대(1990), "비교 구문 논의를 위한 몇 가지 전제", 《경남어문논집》2, 경남대학교, 5-23
김정대(1991), "'보다'비교 구문의 기저 구조", 《주시경학보》8호, 탑출판사, 4-23
김정대(1991), "비교 표현의 '기준'에 대하여", 《들메 서재극 박사 환갑 기념논문집》, 189-209
김정대(1991), "비교소 '보다'의 분포와 기능", 《경남어문》, 경남대학교, 6-18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김정대(1998), "비교구문 의미론", 《의미론 연구의 새 방향》, 박이장, 305-332
김정남(1998),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하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김정아(1993), "비교구문 논의를 위한 기본문제들", 《용운언어》3, 대전대학교 국문과, 6-22
김창섭(1996), 《국어의 단어형성과 단어구조 연구》, 국어학회
김홍수(1998), "피동상사동",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621-664
나은미(2000), "현대 국어 대비조사의 의미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남기심(1986), "국어 문법에서 격자라는 어떻게 정의되어 왔나",《애산학보》5
남기심(1996), "국어의 격과 격조사에 대하여", 《국어문법의 탐구》1, 태학사,68-92
남기심(2001),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남윤지(2000), 《현대국어의 조사에 대한 계량언어학적 연구》, 태학사
류구상(1983), "국어 후치사에 대한 재론", 《경희어문학》6, 경희대학교,172-198
목정수(1998), "한국어 격조사와 특수조사의 지위와 그 의미", 《언어학》23, 47-78
목정수(2003), 《한국어문법론》, 월인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 대학원 박사논문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박신순(1991), “현대국어의 정도어와 비교구문의 연구”, 동덕여대 석사학위논문
서상규(1983), “부사의 통사적 기능과 부정의 범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상규(1991), “정도부사에 대한 국어학사적인 조명과 그 분류에 대해”, 《연세대어문학》 23집, 연세대하교 국어국문과
서정수(1996), 《국어문법》, 한양대학교출판원
손남익(1995), 《국어부사연구》, 박이정
손님익(1996), “국어 부사와 수식 대상”, 《한국어학》 4
안홍경(2001),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출판사
양배철(1983), “차등비교문“-보다 더--”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엄정호(1995), “국어 양태부사의 연구”, 《태릉어문연구》 5-6,
오경숙(2003ㄱ), “‘보다’비교구문의 의미와 정도성”, 《국어학》 41, 국어학회, 277-302
오경숙(2003ㄴ), “국어 후치사 비교구문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오경숙(2010), 《한국어의 비교구문 연구》, 박이정
우순조(2008), “‘-보다’ 성분의 유형과 유사 비교 구문”,《언어학》, 한국어학학회,152- 159
유현경(1994),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82-96
유현경(1996),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이규호(2001), “한국어 복합조사의 판별 기준과 구성 연구”, 한국외대 박사학위논문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 기능”,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이남순(1998ㄱ), 《격과 격표시》, 월인
이남순(1998ㄴ), “격조사”,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이석슈(1998), “현대국어 정도어찌씨의 의미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승명(1992), “국어 비교 구문과 전제”,《수련어문논집》 제19집, 부산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97-108
이영헌(1993), “한국어의 시간부사와 장소부사의 수식구조와 의미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152-163
이익섭(1999), 《국어학개설》,학연사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이익섭(2005),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정훈(2003), "국어 조사의 통합 관계에 대한 통사적 접근", 한국어통사론연구회
이호승(2008), "조사'보다,처럼'의 문법적 지위",《개신어문연구》, 7-22
임두학(1998), "현대 한국어 형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동훈(2002), "한국어 조사 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학》16, 149-182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분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43, 119-154
임동훈(2005), "한국어의 조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 방송대 평생교육원
임동훈(2006), "'만큼, 처럼, 보다'가 격조사인가", 《국어학》48, 128-139
임유종(1999), 《한국어 부사 연구》, 한국문화사
임지룡(1987), "정도 그림씨의 의미대립 특성", 《언어》12권 1호
임지룡(1991), 《국어의미론》, 탑출판사
임채훈(2002), "국어 비유구문의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제10집, 한국어의미학회,
임홍빈·장소원(1995), 《국어문법론》1, 한국방송통신대하교 출판부
장영희(1997), "화식부사의 의미 유형에 대한 고찰", 《한국어의미학》1
정교환(1987), "국어 문장부사의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인교(1981), "한국어 비교 구문에 대해서",《언어연구》제1집, 대구언어학회,61-74
정인수(1996), "국어 정도형용사 구문의 의미", 《영남어문학》, 제29집
정인수(1998), "국어 차등 비교 형용사 구문의 의미연구", 《어문학》62집, 한국어문학회, 67-81
정인수(1999), "국어 동등 비교 형용사구문의 의미연구", 《현대문법연구》제18집, 현대문법학회, 151-164
정철주(1982), "현대국어 정도부사 연구", 한국학 중앙연구원 석사논문
정철주(1984), "차등비교 구문과 기준", 《계명어문학》1-1, 계명어문학회,33-50
정철주(1985), "파생접미사 '-적'의 단어형성", 소당천시권박사화갑기념, 국어학논총
채완(1990), "특수조사",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서울대학교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채완(1997), “현대국어 특수조사의 연구”, 《국어연구》39
채희락(1998), “Tough-구문과 비교구문의 영어-한국어 비교분석”, 《어학연구》 34,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43-65
최건(2010), “유형학적 관점에서 본 한중 차등비교구문의 차이”, 《중국언어연구》31, 158-181
최경봉(1998), 《국어명사의 의미연구》, 태학사
최동주(1997), “현대국어의 특수조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 《국어학》30, 201-244
최현배(1971), 《우리말본》, 정음사
하길종(1998), “비교와 비유의 의미”, 《한국어학》제7집, 한국어학회, 149-171
하길종(1999), 《현대 한국어 비교 구문 연구》, 박이정
한광익(1998), “‘와/과’로 구성된 명사구의 의미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한재영(1996), “조사 중첩의 원리 모색”, 《이기문교수정년퇴임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774-801
한정한(1990), “국어 비유어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사만(1977), “국어 정도부사와 상태부사의 비교연구”, 《동양문화연구》4, 경북대
홍사만(2002), 《국어특수조사 신연구》, 역락
홍윤표(1976), “비교구문에서 격어미와 후치사”, 《학술원논문집》15, 201-226
황미향(1995), “‘더/덜’ 구문의 통사 구조 연구”, 《어문학》57, 한국어문학회, 342-356
Huddleston, R. (1967), More on the English Comparative, Journal of Lingustics 3: 91-102
Lees, Robert B. (1961), Grammatical Analysis of the English Comparative Construction, Word 17: 171-185

<중국어로 된 문헌>

金燕 (2007) ,“朝漢比較範疇表達對比”, 延邊大學碩士論文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金英姬 (2002), “現代漢語比較句研究”, 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馬眞 (1986), “‘比’字句內比較項Y的替換規律試探”,《中國語文》2
馬眞 (1988), “程度副詞在表示程度比較的句式”,《世界漢語教學》2
史銀姈 (2003), “現代漢語‘差比句’硏究”, 中國社科院語言硏究所 博士學位論文
邵敬敏 (1990), “‘比’字句替換規律小議”,《中國語文》6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中文摘要>

現代韓國語差等比較句研究

本文以現代韓國語中的差等比較句爲研究對象，揭示了詞類中哪些詞性可以充當差等比較句的比較謂詞成份，同時考察了差等比較句中部分成份的省略問題。

觀察差等比較句的比較謂詞，我們可以看出形容詞和其它詞性可以充當句子的比較謂詞成份。但是由於差等比較句的句法構造和語意的影響，充當比較謂詞的詞類又受受到了很大的限制。本文以差等比較句中出現的比較謂詞爲研究對象，指出哪些詞性可以充當比較謂詞的成份。差等比較句由比較主體，比較對象，比較內容，比較標誌，比較謂詞等諸多成份構成。這些成份可以同時出現在差等比較句中，也可以根據句子的情況適當地被省略。本文從比較主體的省略開始，對比較對象，比較內容的省略作了詳細的考察研究。

本文第二章的內容介紹了有關比較句的一些基本概念。首先對比較句重新進行了定義，說明了比較句的成立條件。繼而列擧了比較句的構成要素，以及對比較句進行了分類，最後考察了差等比較句的形態和句法構造。

本文第三章重點對比較謂詞進行了考察。考察的比較謂詞包括句法層面上的形容詞謂詞，動詞謂詞和名詞謂詞，同時還包括語義層面上的副詞謂詞和冠詞謂詞。本章第一節里以形容詞爲中心，分別列擧了可以充當和不能充當比較句謂詞的形容詞。第二節里以動詞爲中心，說明了只有極少數具有程度性的動詞能夠充當比較謂詞。第三節里以名詞爲中心，考察了哪些名詞可以作爲比較謂詞。第四節和第五節分別對副詞謂詞和冠詞謂詞進行了考察。

第四章重點對差等比較句中成份的省略進行了考察。首先第一節里研究了比較主體的考察，接下來第二節對比較對象的考察進行了論述。其中比較對象的省略分爲全體省略和部分省略，部分省略根據中心語和前面名詞的關係又劃分成了五種情況并分別進行了論述。最後對比較內容的省略進行了考察。基於比較內容的省略和比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

較謂詞有著密切的關係，本文按照謂詞的詞性對比較內容的省略問題進行了論述。
第五章闡明了本文的結論，并指出了研究中的不足之處。

關鍵詞：差等比較，比較謂詞，構成成份，省略，比較主體，比較對象，比較內容

學號：2009-22488



Copyright(c)2002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ll rights reserved.(http://library.snu.ac.kr)